현대불교

제 80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음력 8월 22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국민 논의기구 구성 '공감'

조계종 화쟁위원회 4대강 토론회

정부 · 여야 · 시민단체 입장차 극명
국민 논의기구 설치 첩첩산중

정부와 여 · 야 · 시민단체가 4대강 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커 논의기구 구성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화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여당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야당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사회단체에서 박진섭 4대강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 논의기구에 대해 "4대강과 관련한 갈등만 해결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새만금 등 그간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 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이 된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국민 논의 기구 설치에는 반대한다. 공사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사가 40% 가까이 진행된 현 시점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진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의 주장은 위원장 도법 스님의 발언 이후 접점을 찾게 됐다.

도법 스님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갈등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부터 민주주의에 충실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갈등과 대립을 그치고 동반자로서 공존의 방식을 찾자"고 말했다.


4대강화쟁토론회에서 정부 · 여당과 야당 · 시민단체간 찬 · 반 격론이 계속 되자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화쟁위원 법등 스님, 법안 스님(왼쪽부터)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이미경 사무총장은 "TV 생중계 등으로 2~3일간 끝장토론을 해 국민들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알린 뒤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현장을 돌며 끝장토론을 벌이자. 당에 돌아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도법 스님은 "민주주의 방식에 최대한 충실해 오늘 나온 끝장토론, 공론조사 등 의견을 종합하면 뭔가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이웃종교와 함께 4대강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안했을 때 방법이 합리적임에도 명분 없이 반대한다면 정부건 시민사회단체건 강력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단의 명운 걸고서라도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모두 국민의 답답한 가슴,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풀어가는데 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 여당에서 소통을 전제로 한 제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국민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 · 여당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불통 상태서 소통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갈등 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법규위원회 공식사과

참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법규위원회가 공식사과와 함께 문제 발언을 한 A스님은 자진사퇴키로 했다. 하지만 참고인이었던 B보살의 국가인권위 제소 취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9월 17일 기자브리핑에서 "16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기자브리핑에서 "A스님은 회의에서 '진실규명 의욕이 앞섰다. 법규위원회 · 종단 · 당사자인 B보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15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10여 불교계 단체는 법규위원회에 △법규위원회 공식사과 △해당 법규위원 사퇴 △심문 제한 보호제도 도입 △중앙종무기관 내 성희롱 문제 처리기구 설치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조동섭 기자



8 9 선지식을 찾아서 통광 스님

아무리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요>에서는 한 생각을 일으켜 현현한 관문을 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2 3 조선불교유신론 100년 소설 만해 스님

추석 연휴로 16면 발행합니다

정순왕후 한 서린 청룡사 문화
<허경 스님>
문명대 교수 책으로 엮어 출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룡사에는 영조 임금이 친필로 쓴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비각과 비석, 현판이 있다. 정업원은 궁궐 안에 있던 법당이다. 왕비나 공주 상궁 등이 궁궐 밖으로 함부로 나올 수 없어서 궁궐에 법당을 지어놓고 기도하던 곳이다. 4대문 밖의 청룡사가 '정업원'이란 궁궐 내 법당의 이름을 갖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조 비운의 임금 중 하나였던 단종 임금의 비가 정순왕후이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복위를 시도했던 사육신 사건(1456년) 이후 동대문 밖으로 쫓겨나 청룡사의 비구니(허경 스님)가 됐다.

허경 스님은 매일 청룡사 위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영월로 유배간 단종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 정순왕비 허경 스님을 동정한 도성의 부녀자들은 푸성귀를 사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 행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긴 행렬을 이뤘다.

이에 왕실이 푸성귀 공양을 금하자, 부녀자들은 청룡사 인근에 금남(禁男)의 채소시장을 열어 팔고 남은 채소를 몰래 시주했다. 이 시장이 바로 동묘 남쪽 채소난전으로 일명 여인시장으로 불렸다.

청룡사에는 '자주동천'이라는 샘물이 있었다. 생활이 어려웠던 스님은 옷감을 받아와 이 샘물에서 자주빛이 나는 약초인 쭈치를 캐어 물들여 생계를 꾸렸다. 물들인 옷감이 바위에 널려진 청룡사를 두고 사람들은 '자주동절'이라고도 불렀다.

동망봉에 올라 단종을 그리워하던 허경 스님에게 시녀가 돌아갈 시간을 아뢰면, 스님은 "게 있게(거기 그대로 있게)"라고 말했다. 시녀는 '게있게 보살'로 불렸고,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스님의 재를 지낼 때 걸렸던 '게있게보살'의 영정은 지금은 불타서 남아있지 않다.

허경 스님은 숙종 24년(1698) 단종 복위와 함께 정순왕후로 다시 복위돼 종묘에 신위가 모셔지고 사릉이라는 능호도 받았다.

이후 영조 임금은 숙종 때 복위된 정순왕후 허경 스님의 한 많은 일생을 소상히 들었다. 영조는 정순왕후 허경 스님의 갸륵한 일생을 기리는 뜻에서 청룡사를 옛 왕실 후궁출신 비구니들의 사찰인 정업원으로 존칭하게 했다. 그리고는 손수 쓴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어필을 내렸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청룡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 등을 총망라한 <청룡사의 역사와 문화>를 출간했다.

책에는 청룡사의 역사자료 뿐만 아니라 석삼불상 등 불상, 불화, 불구, 건축 등 문화재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됐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청룡사는 비구니절로 세워져 비구니절로 계승돼 온 비구니사찰의 산 역사"라고 말했다. (02)3673-3426

조동섭 · 이은정 기자







스스로 내지 못하는 목소리는 결국 꺼져버리는 법

소설 만해 한용운


삽화=김홍인

인적 없는 마을 풍경이었다. 그래서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황망히 옮기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인가를 둘러보았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굴뚝에 연기 나오는 집 한 채가 없었다. 일제의 수탈이 날로 심해져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진 때문이리라. 이러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선사의 입적 소식을 들었던 일도 '꿈이 아닐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잠시나마 하였다.

심우장의 문은 열려 있었다. 늘 그곳을 지키고 서 있던 왜경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거슬렸던 인물이었다.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어쩐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망설여져 또 걸음을 멈추었다. 때는 여름의 초입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채 뜨거워지지 않은 그 바람에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이윽고 선사가 떠나신 현실감이 느껴졌다. 물이 어린 눈에 심우장의 현판이 어른거렸다. 위창 오세창 선생의 글씨였다. 나는 여전히 멈춰 선 채로 그 현판을 바라보다, 집안으로 무거운 발을 옮겼다.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북향으로 지어진 집 마당은 바깥보다 어두운 느낌이었다. 심우

이 나라 전체가 감옥과 같은데 어떻게 불 피운 방에서 잘 수 있느냐

장을 북향으로 지은 것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남향을 하면 집이 조선총독부 쪽을 바라보는 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미 남향으로 터를 잡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만해선사의 불호령에 집터의 방향을 고쳤다는 이 이야기는 유명하다. '무엇답다'라는 말이 점점 더 무색해지는 시대였다. 이제 이러한 '만해 한용운다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의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을 뵙기 위해 심우장을 찾았던 것은 지난 해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지는 바람 끝은 겨울이 잰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 했다. 집 마당에 스님이 정성들여 가꾸시는 화초와 화목들도 그 빛을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습이었다. 그 광경이 당시 나의 마음과 묘하게 맞물려져 나는 더욱 울적해졌다.

스님은 그날도 냉방에 앉아 계셨다. 방에 불을 때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다. 일본에 빼앗긴 이 나라 전체가 감옥과 같은데 어떻게 불 피운 방에서 잘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셨다. 아무리 추워도 자세에 한 치의 흐트림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마치 '저울추' 같다고도 하였다.

"젊은 얼굴에 패기는 어디가고 근심만 가득하구먼."

스님의 첫 말씀이었다. 웅변가에 달변가이셨으나, 본디 필요한 말 외에는 과묵한 분이셨다. 그날도 대뜸 정곡을 찌르신 것이다. 나는 선사를 바라봤다. 작고 검붉은 얼굴, 뚜렷한 주름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서늘한 눈매에서는 냉철함이 풍겨 나왔다. 나는 쉽게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잠시 적막이 흘렀다. 문풍지를 두드리고 가는 바람 소리만 간혹 들릴 정도였다. 질문에도 강한 것과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려는 질문은 매우 연약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일수록, 꺼내는 데 더욱 많은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나는 숨을 고른 다음 입을 열었다. 호된 꾸중도 달게 받으리라는 마음이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 없이 던진 우문이었다. 선사는 꿰뚫을 듯이 나의 눈을 응시하셨다.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일제와 손을 잡고 변절하였습니다. 꿈에도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제의 수탈이 심해져 백성들이 모두 신음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행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 학병 출정을 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나아가야할 바, 지향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그들이 자네의 지향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리 소심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는 말인가!"

노기를 띤 그 말에 나는 달리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잠시 후, 스님은 말투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리며 올해 나이가 어찌 되냐 물어 보셨다. 내 대답을 들으신 스님은 "흠…."하며 한숨을 쉬시더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데 답을 어찌 찾겠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네." 라고 하시며 어쩐 일로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내가 본격적으로 불도에 입문한 때가 바로 자네 나이쯤이었네. 시절이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때지. 어쩌면 그 시절, 나의 고민도 자네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네. '이러한 시대에 나의 인생이란 어떤 것이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라는 고민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 길을 찾았느냐, 한다면 나는 한 치의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걸세. 어느 겨울 설악산 오세암에서 나는 그것을 찾았네.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근거라고 하여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네. 그러니 자유로움은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며, 그런 마음에 높고 낮음이 있을 리 만무하니 일체가 평등하네. 자유는 누가 누구에게 준다거나 받는 것이 아닐세. 따로 절대자가 있어 자유를 구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였네. 처한 현실을 근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 비로소 이러한 시대에 나 자신이 나아가야할 바를 알게 된 순간이었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오세암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내가 가야할 길은 무엇보다 분명했네."

"잡지 <유심惟心>을 창간하신 것은, 그럼 그 후의 일입니까?"

<유심>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해 스님이 창간하신 불교 교양 잡지였다. 이 잡지는 총독부의 탄압 등 여러 이유로 아쉽게도 3호에

움직이지 않는데 답을 어찌 찾겠나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네

서 폐간되었으나, 불교의 대중화뿐 아니라 민중이 갈고 닦아야할 수양적인 글을 주로 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대중에게 한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현실적으로 일깨워주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네. 민중과 소통하며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자각과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언론이란 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었지. 수 년 전에 <불교(佛敎)>라는 잡지를 인수하여 새로 발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네. 지금 상황은 더욱 나빠졌지. 일본이 공정한 경로의 언로까지 막고, 자네 말대로 변절한 지식인들이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언론을 주도하려 하네. 게다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은 이제 우리말인 저 위대한 한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네. 창씨개명에 신사 참배라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되네. 누구의 것을 따라서도 안 되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목소리는 결국 꺼져버리고 마는 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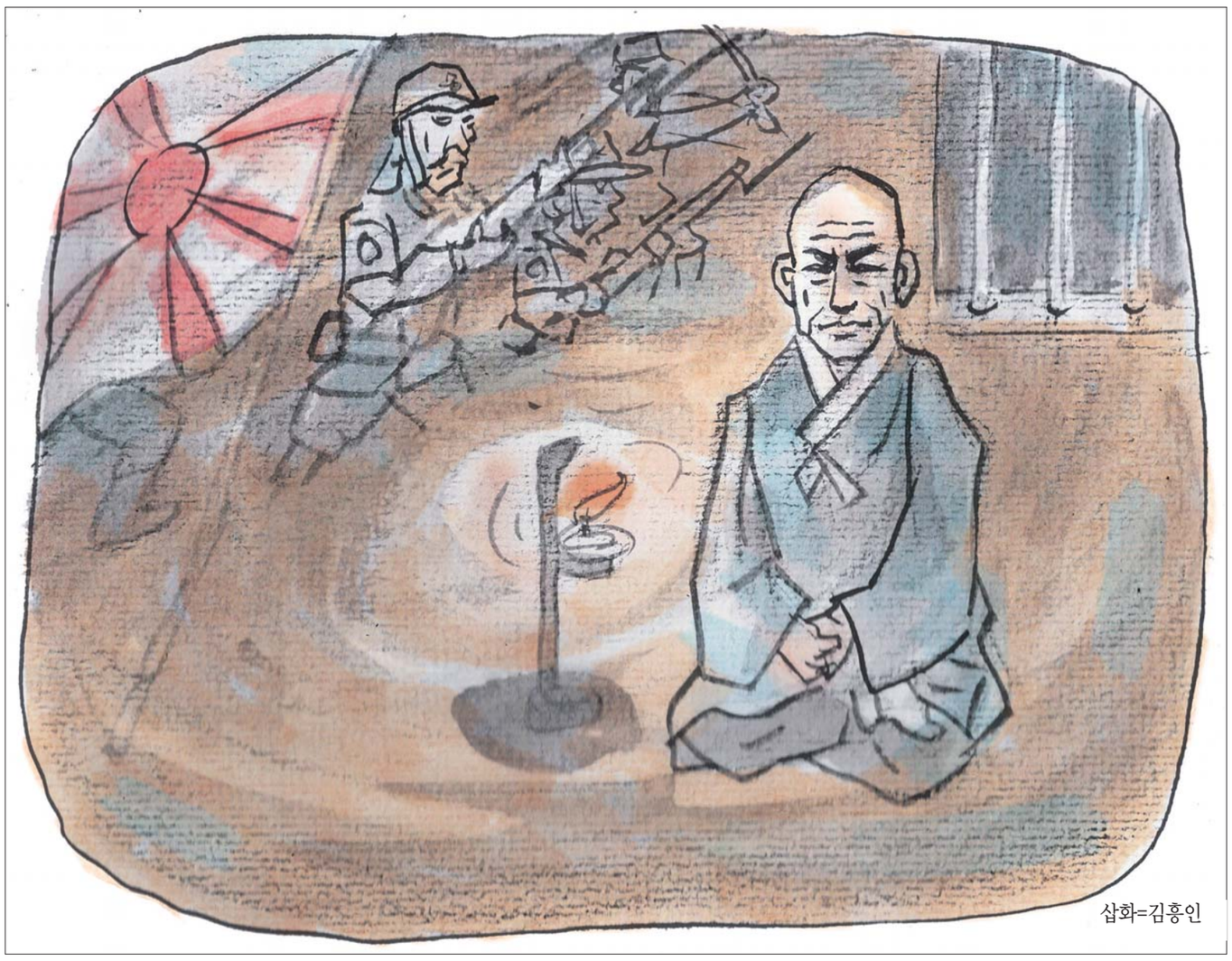
지식인입네 하며 자유와 독립을 말하던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꺼뜨렸던가. 스님은 심지어 조선인이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생을 민적 없이 살아오신 분이셨다. 분명 그로 인한 곤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터, 그런 분의 목소리기에 모든 말씀은 그대로 날아와 심장에 새겨지는 듯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는 상황에 주어지네. 인생이 곧 선택이라

☞3면으로 계속



타고 남은 재 다시 기름이 되어



삽화=김홍인

☞2면에서 계속

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 주어진 문제가 큰가 작은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그 것이 나라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네. 기미년에 있었던 독립 선언도 그 전에 선택의 순간에 있었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폭동이 야기되거나,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 독립 운동을 하지 말고 일본에 독립청원서를 내자는 의견이 있었다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독립국이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나는 독립청원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그들을 설득했네. 결국은 독립선언으로 노선이 확정 되었지."

만해 스님은 익히 알려진 대로 원칙주의자셨다. 스님이 말씀하셨던 기미년 3월 1일, 독립 선언식이 끝난 직후 일경이 들이닥쳐 거기 모여 있던 민족 대표 모두가 총감부에 구금이 된 후 재판을 받던 때의 숱한 일화들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선사는 구속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셨다. 변호사를 대지 말 것, 사식을 들이지 말 것,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이 바로 그 3원칙이다. 나라를 찾으려는 행동에 변론은 필요 없으며,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독립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이라는 것은 일본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되니 하등에 해당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원칙은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이 정해지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철저히 지켜졌다. 스님은 경찰의 심문에서도 시종일관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조선독립이유서'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셨다. 53장으로 이루어진 실로 대논설이라 할 만한 원고였다. 이는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에 소개되어 많은 우국지사들의 가슴을 들끓게 하였으나 일제의 감시 때문에 국내에는 두루 전해지지 않고 있다. 몹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님의 이러한 강직한 성정에 관한 일화는 이 밖에도 많았다. 일찍부터 명망이 높으신 스님께는 유혹이 많았다. 도장만 찍으면 성북동에 있는 산림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은행의 제안을 단칼에 뿌리치셨고, 총독부가 보내는 것이라며 돈을 가지고 온 젊은이는 그 돈을 싸가지고 온 보따리에 뺨을 맞아야 했다. 흥취에 젖은 지인이 무심결에 사용한 일본어 한 마디에도 정색을 하셨으며, 3.1운동 당시에 함께 참여했다가 변절한 동지들은 아예 대놓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셨다. 그 밖에도 스님은 조그마한 불의나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을 비타협주의자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간의 농담 기운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독선에 독단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스님의 표정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웃음기가 느껴졌다.

"지금 이 시대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나?"

"타협입니까?"

"일제에 땅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 현실이네. 몸에도 그들의 구속력이 발휘되어 한쪽에선 학병으로 전쟁에 나서야할 처지이며, 또 다른 쪽에선 노동력으로 강제 징용되고 있지. 여기서 타협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자유라고 한다고 해두지.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자유인 셈이네. 앞에도 말했듯이 자유란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며, 스스로 지켜가는 것일세. 누구로부터 주어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조금이라도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일세. 아마도 타협이 가치 있게 적용되는 시대도 분명 다가올 것이네. 그러나 지금은 아닐세. 나의 생각은 그러하네. 어떤 이들의 시선에 나는 꽉 막힌 원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을 테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원칙은 무용지물일 뿐이네."

부쩍 짧아진 해가 어느새 지고 있었다. 방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온기도 점점 사라져갔다.

"자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지? 그것을 진정 몰라서 내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나. 세상의 시간은 차곡차곡 흘러가네. 그러나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바로 나 자신일세. 우리 각자란 이 말이네.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다네. 내가 여전히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지. 그러니 움직이게. 멈춰 있지 말라, 이 말이네. 지향을 만들어야 한다면, 자기 안에서 찾게나. 이미 변절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죽인 사람들에게 실망해 자신의 의지를 의심해야할 이유는 없네. 제대로 살아가게."

마지막 말씀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아가야할 바는 애초에 분명한 것이었다. 만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또 다시 떠오른다면 그때는 바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되돌릴 일이었다.

그 후, 나는 만해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심우장을 나와서 그 길로 조선 땅을 떠났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확연해졌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멀고 먼 여정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이제 겨우 며칠, 귀국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기도 전에 부음을 전해들은 나로서는 애석함과 비통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례식은 미아리의 작은 화장터에서 불교식으로 조촐하게 이루어졌다. 그곳은 만해 스님이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 선생의 영결식을 했던 장소였다. 김동삼 선생이 누구인가. 항일 무장 투쟁에 평생을 바친 독립투사 아니었던가. 그러나 총독부의 시선이 두려워, 선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선뜻 그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로지 스님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시신을 수습하러 달려가셨고, 다른 곳도 아닌 심우장에서 5일장을 지내신 것이다. 의로운 행위에 있어서 주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우리들이 바로 그런 '만해 한용운다움'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화장터의 일꾼 중 한 명이 일행들에게 신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려왔다. 화장이 끝나고 모두 소골된 뼈 가운데서 유독 치아만이 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타지 않는 치아의 출현을 귀하게 여겨왔다. 일찍이 목격한 적이 없는 이 신묘한 현상은 만해선사의 높은 법력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이 그토록 확신에 차 염원하시던 민족 독립의 전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모두는 머리 숙여 합장하고, 그 치아를 항아리에 담아 유골과 함께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슬픔이 길어야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본 희망을 각자의 가슴에 품고 다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인생이 곧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 내 선택이 나라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알 수 없어요」, 만해 한용운

고지연 / 작가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문체를 통해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 기업 지니앤노박(www.jiniandnovak.com)을 통해 환타지 소설 '수리아의 검'을 선보였다.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보조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명

10월 7일(목) 9시 ~ 8일(금) 16시 /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



International Academic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Bojo Jinul's 800th Nirvana

1일차 (7일)

제1부 식전 행사 09:00~09:40
· 사회 : 황정일 (본원 기획실장)
• 삼귀의례
• 대회사 현호 스님 (본원 이사장)
• 격려사 자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인사말 법산 스님 (본원 원장)
• 축 사 영조 스님 (송광사 주지)

제2부 기조 발표 09:40~10:20
· 사회 : 황정일 (본원 기획실장)
· 법산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본원 원장) : 한국불교의 전통과 보조 지눌 스님
·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 오늘의 세계, 왜 보조사상인가?

제3부 최신 사료 소개 & 주제 발표 I 10:20~12:00
· 사회 : 황순일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1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보조추붕사기」에 대한 소고
· 2 성원 스님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 : 박한영 (1870-1948)의 선 종파주의 비판_신회, 종밀과 지눌의 선교 통합주의 전통 계승
· 논평 :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 점심공양 12:00 – 13:20

제4부 주제 발표 II 13:20~15:00
· 사회 :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 3 西村惠信 (일본 하나조노대 교수) : 지눌선의 사상적 특수성과 그 현대적 의의_돈오점수를 살펴본 소견
· 논평 : 계환 스님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4 吉津宜英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 보조국사에 있어서 교판으로부터 행판의 형성
· 논평 :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 휴식 15:00 – 15:20

제5부 주제 발표 III 15:20~17:50
·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 5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 보조지눌 사상의 통시적 현재성
· 논평 : 최연식 (목포대 역사학과 교수)
· 6 최성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 普照禪의 返本還源
· 논평 : 정영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7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 : 보조 간화선의 성격과 그 현대적 의의
· 논평 :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환영만찬 18:30 – 20:00

2일차 (8일)

제6부 주제 발표 IV 09:00~11:50
· 사회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8 楊曾文 (중국불교연구소 교수) : 보조지눌선사 선법약론
· 논평 : 김영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교수)
· 9 魏道儒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미정
· 논평 :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
• 휴식 10:40-11:00
· 사회 : 황순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10 Guang Xing(홍콩대 불교학센터 교수) : 중국 문화에 있어서 선불교가 끼친 영향
· 논평 : 정덕스님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점심공양 11:50 – 13:00

제7부 주제 발표 V 13:00~15:30
· 사회 : 우제선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11 인경 스님 (동방대학원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 간화선에 기반한 명상상담 일고찰_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중심으로 · 논평 : 미정
· 12 정승석(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頓悟漸修와 眞心息忘의 요가 철학적 성격
· 논평 :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 13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 위빠사나에 비추어 본 보조지눌의 수행체계
· 논평 :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강사)
• 총평 / 폐회사 / 사홍서원 15:30 – 16:00

보조사상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련사 3층
전화번호 02)733-5311/5315 FAX 02)733-5590 email : semcan@naver.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4>

선사가 몰라야 법에 맞는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노승이 오늘 밤은 대답해줄 것이다. 물어볼 사람은 나오너라."
어떤 승이 겨우 나가서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요사이 나는 기와를 던져버리고 구슬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 굽지도 않은 벽돌 한 개를 겨우 얻었을 뿐이군."

師示衆云 老僧今夜答話去也 解問者出來
有僧纔出禮拜
師云 比來拋磚引玉 只得箇墼子

자고로 참된 선지식이라면 언제나 기와를 버리고 환하게 밝은 보배 구슬이 되라고 온갖 방편을 동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조주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자, 그대들을 깨닫게 해주겠다. 나와서 물어라" 하고 낚시를 던져보았다. 천상천하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지 그것을 가려내 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겨우 신참 하나가 나와서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이것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나오라는 말에 유혹당해 나온 애송이도 한심하지만, 아예 나오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질문이 필요치 않는 '해득한 자'라면 이러한 때 얼른 나가서 용의 머리를 잡아채 용의 등을 타고 천하를 한번 횡행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기상을 가진 자도 없고, 하릴없이 총림에 앉아서 나오는 반찬의 미추나 살피고 해제 결제 숫자나 자랑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교를 망하게 하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주 선사와 같이 자상하고 열렬한 선지식이 있는 도량도 하물며 그러한데, 오늘날 시대를 잊고 신선처럼 살아가는 지위들이 다스리고 있는 도량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도대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학승이 물었다.
"개(犬)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없다(無)."
학승이 물었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는 업식성(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다."

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無
學云 上至諸佛下至蠢子 皆有佛性 狗子爲什麽無
師云 爲伊有業識性在

업식(業識)은 전생부터 해오던 버릇을 말한다. 개는 전생부터 내려온 업식에 의해 동물적 본능을 발휘하고 산다. 청정한 본성보다 업식에 의한 습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자기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하니 불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선문답은 종문의 유명한 화두이다. 사실 조주 스님이 없다(無)고 한 뜻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선(禪)의 핵심을 간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동감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무(無)의 참 뜻은 종문의 화두이다.

도대체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한 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독자들은 틈틈이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이 화두의 뜻은 너무 강렬해 사족도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견해는 달지 않겠다.

업식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깨달음 못얻어
모르는 것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선사가 되면 결국 모르게 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법신(法身)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응신(應身)이야."
학승이 말했다.
"저는 응신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다만 응신(應身)과 상관있을 뿐이야."

問 如何是法身
師云應身
學云 學人不問應身
師云 你但管應身

온 우주의 본바탕인 부처는 세 가지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바로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이다. 법신은 법(法)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파괴는 '법'이 하는 것이라는 객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이름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했다. 일단 법신은 '법' 그 자체가 나오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법신(法身) 말고 또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는 법성(法性)이라고 한다.

보신은 중생이 간절하게 보고 싶을 때 나타나 응해주는 응보신이다. 응보신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다. 대표적인 이름은 '노사나불'이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는 스승의 역할이다. '석가모니불'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삼신불은 3가지 다른 작용을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다. 그 뿌리에 대한 명칭은 본성(本性), 불성(佛性), 법성(法性), 각성(覺性), 자성(自性)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법신은 형체가 없고 만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도(道) 그 자체이다. 삼신불에 대하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보신이나 화신정도이다. 법신은 아무리 알려해도 알기 불가능하다. 혹 어쩌다 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신을 안 것일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전혀 모를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더욱 몰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지(知:앎)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목석이 아니야. 어찌 모르겠느냐?"
학승이 말했다.
"훌륭하신 모름이시군요."
조주 스님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問 學人全不會時如何
師云 我更不會
云 和尙還知有也無
師云 我不是木頭 作麽不知
云 大好不會
師拍掌笑之

모르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고로 훌륭한 선사들은 다 몰랐다. 선사가 몰라야 법에 맞는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여러 번 설한 뜻이다. 다만 선사는 모든 것을 알면서 모른 상태이고 학인은 모르고 모른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똑같다. 선사가 되면 결국 모르게 되는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⑮ 임제록

선의 꽃을 피우다

<임제록>은 임제의현(?~867)의 언행록이다. 임제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진주, 오늘날의 하북성 석가장시(石家莊市)의 북부로서 호타하(滹陀河) 주변에 있었던 작은 선원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의현은 당말기의 전란에 즈음해 이 지역에 할거한 진주 왕(王)씨의 귀의를 받아서 임제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법을 설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임제록>은 그 제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설법과 응답을 수록했다.

임제의현의 전기는 몇 가지 자료가 있지만 <임제록>에 수록돼 있는 행록(行錄) 부분이 그 중심이 된다. 후에 임제종의 종조로 추앙돼 모든 전기가 그 종조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됐지만 행록에는 무엇보다 생생한 인간적인 의현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오늘날 널리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북송 말기의 선화 2년(1120) 복주 고산의 원각종연(圓覺宗演)이 중간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 중간(重刊)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판본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곧 <사가어록>에 수록된 것으로 원각종연 이후에는 초간본이 소실돼버렸다.


임제의현(?~867)

원각종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개편됐다. 1238년의 <속개고존숙어요>를 비롯해 명대 초기에 개판된 남경판 대장경의 <고존숙어록> 제4권 – 제5권 및 1630년에 출판된 <오가어록> 제1권에 수록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텍스트는 각 시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만 <임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원각종연본이 가장 도움이 된다.

임제의현은 진주지방의 임제혜조(臨濟慧照)로서 선종사 가운데서도 걸출한 선자였다. 그의 일대기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사상에서 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줬고, 가장 잘 전해준 선사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고 그 긍정을 모든 존재에게까지 적용했으며, 자신의 본래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쉼 없이 추구한 선자였다. 따라서 선은 달마를 통해 씨앗이 뿌려지고 혜능을 통해 뿌리가 내렸으며 마조를 통해 줄기가 번창했고 임제를 통해서 꽃이 피었다.

임제의 기본적인 사상은 당대(唐代)에 형성되고 전개된 소위 조사선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곧 철저한 현실긍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유무애한 행위를 유감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이것이 임제에게는 무위진인(無位眞人)으로 드러나 있다. 그 인(人)은 곧 주체적 인간이다. 현실에 주하면서 현실을 단순한 관념의 세계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구가해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아무런 가식도 없이 정나라(淨裸裸) 적쇄쇄(赤灑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기성의 질서를 타파하고 인간 본래의 가치를 주장해 온 임제의 언행은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대기대용(大機大用) 및 할(喝)과 방(棒) 등이 임제선의 방편적인 특색이 돼 거기에서 일종의 유형화(類型化)가 시작됐다.

임제의 인본사상은 개개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했으며, 그 사상과 자유롭고 활달한 선기는 송대선의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가령 "맨 몸뚱아리를 하고 있는 하나의 무위진인이 항상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들의 얼굴로 출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자는 똑바로 보라"고 말한다. 일체의 가식을 떨구어 버리고 순수한 인간과 대면하는 자신의 본래면목을 한순간만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우리네 주위에서 늘 상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부정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래성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본질을 벗어나 허망한 환상을 추구하는 소위 어리석은 성인들에 대한 질책이다. 임제가 즐겨 구사한 할(喝)과 방(棒)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초심의 그 기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황벽의 문하에서 세 차례 얻어맞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고, 중생과 부처와 임제 자신이기도 하며, 불과 법과 승이기도 하고, 임제 자신이 내세운 삼구법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임제선법의 스타일은 굳이 가르마를 탈 필요도 없다. 단지 몽땅 그렇게 살아가고 몽땅 그렇게 수행하며 몽땅 그렇게 깨치고 몽땅 그렇게 맛을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부분이 따로 없이 하나의 전체일 뿐이다. 불법은 애써 힘쓸 필요가 없다. 다만 평소에 아무런 탈도 없이 똥 싸고 오줌 누며[屙屎送尿], 옷 입고 밥 먹으며[着衣喫飯], 피곤할 때는 잠자면 그 뿐이다[困來卽臥]. 어리석은 사람은 밖을 향해 공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수처작주(隨處作主)하고 입처개진(立處皆眞)하는 도리이다. 그래서 수처작주가 곧 그대로 입처개진이 된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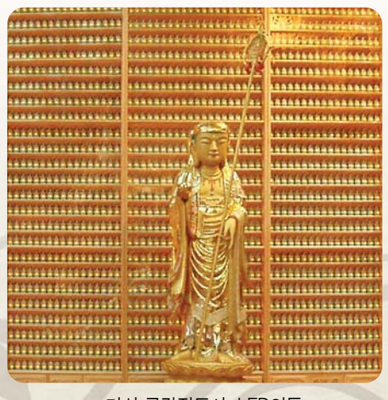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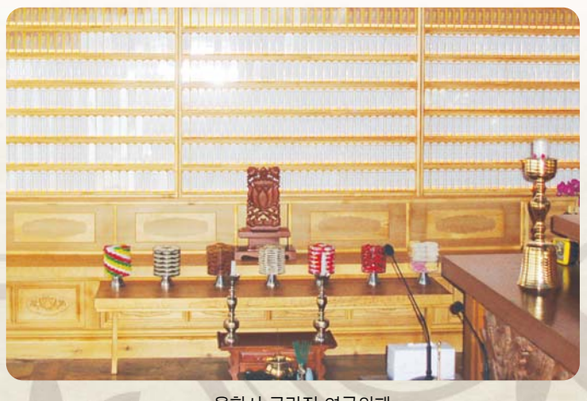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최연의 산 이야기 <28> 가야산 2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바라본 안산. 나즈막하면서도 편안하게 둘러쳐 있다.

해인사를 품고 있어 산격이 더욱 빛나는구나

〈山格〉

가야산은 삼보사찰(三寶寺刹)의 하나인 법보종찰(法寶宗刹) 해인사(海印寺) 때문에 성지(聖地)로서의 격(格)이 한층 높아졌다. 해인사 터는 행주형(行舟形 :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의 명당이다. 주산(主山)인 뒷산이 매우 웅장하고 앞산인 안산(案山)이 수려하고 나지막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행주형의 명당은 보통 해상(海商)이나 수군(水軍)의 장수 등을 많이 배출하며 대부분 안산이 돛대나 노처럼 생겼다.

그런데 해인사는 안산이 봉황처럼 생겼고 돛대가 명당 안에 있어 여느 행주형과 많이 다르다. 명당 안에 돛대를 갖추었으니 그 기세가 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또 상서로운 봉황을 배에 실었으니 성스러운 기운이 크게 감돌아 범속(凡俗)을 초월한 대도인(大道人)이 나올 곳이다. 그래서인지 해인사 스님들의 호연지기는 일제시대 친일행각으로 유명했던 이회광(李晦光) 스님의 해인사 주지 부임에 거세게 반대하여 이회광 스님이 주지직을 포기하고 해인사를 떠나게 만든 사례도 있다.

해인사 담장 뒤에는 수마노탑이라고 불리는 탑 하나가 서 있다. 이 탑이 선 자리에는 원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 이름이 돛대바위인데 해인사 터가 배의 형국이니 이 배의 돛대 역할을 했던 바위이다. 그런데 일제 때 해인사 스님들이 반일감정이 강했고 그중에는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스님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를 미워한 일본인들이 해인사의 지기(地氣)를 망가뜨리려고 돛대바위를 깨뜨려버려 해인사 터는 돛대 없는 배 형국이 되어버렸다.

배가 돛대가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해인사도 한동안 주지스님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고, 해인사를 찾은 수행자들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것이다. 이를 염려한 스님들이 해방 후에 돛대바위가 있었던 자리에 수마노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수마노탑이 해인사 터의 돛대 역할을 하게 되어 해인사는 차츰 안정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수행의 대가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한다.

해인(海印)이란 이름은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인용한 말인데 삼매는 온갖 번뇌를 여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를 뜻한다. 이 경지는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길인데 진리의 세계에서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해인(海印)'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인사 터는 진리의 바다, 하늘세계로 나아가는 배라고 할 수 있다.

해인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엄사상을 꽃피운 화엄도량으로서 부석사, 화엄사, 범어사, 갑사 등과 더불어 화엄십찰(華嚴十刹)에 해당된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哀莊王) 때 의상(義湘)대사의 법손(法孫)인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순응은 의상대사의 법제자(法弟子)인 신림(神琳)을 찾아가 공부한 다음 중국에 가서 교학과(敎學)과 선(禪)을 깊이 탐구하고 귀국하여 가야산에 들어가 정진하였는데,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 애장왕의 할머니인 성목태후(聖穆太后)가 알게 되었다. 신심(信心)이 아주 깊었던 성목태후는 순응 스님에게 귀의하였고, 태후의 후원으로 순응 스님이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 것이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 이정스님은 화엄사상 종조(宗祖) 의상대사의 법을 이어받은 이들이었고 희랑(希朗)대사, 대각국사 의천(義天), 해봉유기(海峯有璣), 설파상언(雪坡尙彦), 벽암각성(碧巖覺性) 등 많은 화엄학의 대가들이 해인사에 주석하면서 화엄정신을 꽃피웠다.

해인사가 법보종찰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경판(經板)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불력(佛力)으로 몽고의 침략을 막고자 제작되었다. 16년이 걸린 대역사(大役事) 끝에 1511종 6805권에 이르는 문헌들을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새겼는데,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중국의 대장경 판을 훨씬 앞지른다.

경판에 사용한 목재는 자작나무인데 남해바다 여러 섬에서 나무를 베어내서 남해 관음포 앞바다에 3년 동안 담근 후 조각을 냈다. 이 조각들을 다시 소금물에 삶아서 그늘에 말린 후 대패질을 해서 거기에다 경문(經文)을 붓으로 쓴 다음 끌로 새기고 판 전체에 옻칠까지 했다. 소금물에 삶고 옻칠까지 했으니 벌레들이 범접할 수가 없었다.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했는데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해안지방에 왜구들이 발호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자 조선 태조 때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 그러다 얼마 안가서 해인사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해인사로 고려대장경이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해인사가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전에 속장경을 주조한 대각국사 의천과 인연이 깊은 도량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가야산이 지덕(地德)이 두텁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유학을 숭상했던 조선의 지배계층이 고려대장경을 유배 보내듯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해인사는 고려대장경이 옮겨오면서 법보종찰로서 거듭났다. 경판을 모신 장경각(藏經閣)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위에 자리잡고 있어 부처님 머리 위에 불법이 얹혀 있는 형상이고 그 터 또한 해인사에서 가장 빼어난 명당이다.

해인사에는 조선 숙종 때 큰불이 두 번이나 나서 여러 동의 건물이 불타 없어졌고, 영조 때도 건물 수백 간이 소실되었다. 순조 17년에는 엄청난 큰불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타버렸다. 그런데도 장경각만은 한 번도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불법의 상징인 대장경의 영험도 있겠지만 장경각 터의 지기(地氣)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녁에서 아침까지

빗소리로 꽉 찬 세상이다. 빗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허용되지 않는 땅 위에서 나는 집안에 옴짝달싹 않고 박혀서 비를 바라보며 빗소리에 젖는다. 그 흐름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꼭대기 집이래요."

"예? 꼭대기 어디죠?"

"나물밭집이래요."

"아! 예, 잘 계시지요?"

"예에. 그렇죠 뭐. 그런데 아직 개가 있어요?"

암캐가 발정이 난 모양이었다. 우리 집 진돗개가 간만에 몸을 풀 기회가 찾아왔다. 마침 비가 그치려는지 빗방울이 성글다.

"어이구, 개가 아직 어리네요."

"예 이번이 처음이래요."

데려온 개를 진돗개 집 앞에 말뚝을 박고 묶는 중에도 유진이(진돗개 이름)는 할머니가 데려온 개의 볼록하게 부어오른 거시기를 연신 핥아댄다. 성급하게 올라타 으쌰으쌰찔러대기도 한다. 하지만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바짝 붙이고 있는 암컷에겐 쉽게 먹히지 않는다. 붉은 거시기가 옆으로 삐지면서 뒷다리살 위를 비벼대다가 힘없이 툭 내려앉기를 몇 번. 드디어 뭔 일이 성사되는가 싶으면 암캐가 '깨갱' 소리를 지르며 눌렀던 몸을 빼내는 통에 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들어가서 차 한 잔 하시죠?"

"아녜요. 일이 좀 되면 얼른 데리고 가야죠. 괜히 폐만 끼치는데. 돈도 안 가져왔는데."

하지 않으면 좋을 말까지 덧붙인다.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아닌 까닭이겠지.

"오늘 하룻밤 동안 놔뒀다가 내일 데려가시죠?"

'그럼 내일 일찍 오겠다'며 할머닌 걸음을 옮겼다. 흰 머리카락이 뒤덮은 머리가 길을 따라 둥둥 산 위로 오르듯 멀어진다. 13년 전,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검은 머리였는데, 피부도 그런대로 윤이 나는 아줌마였는데.

그치는가 싶었던 비가 다시 기운을 내 내리기 시작했다. 다 내린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제도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도 밤새워 내릴 요량인가? 방에 들어와 앉아 빗소리를 듣는다. 개들이 있는 뽕나무 아래는 조용하다. 남의 집 개인데. 밤새워 비를 맞다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어쩐다! 다시 나가서 돌담 위에 양철판을 놓고 묵직한 돌 몇 개를 올려놓아 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두 마리 개는 여전히 뭔가 잘 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 중에도 바짝 붙어서서 떨어지지 않는다. 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가도 빗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있는 두 마리 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끼이잉 끼잉 끼이이잉 끼이잉."

유진이의 소리는 아니다. 좀 더 여린 개가 하염없이 사정하는 소리다. 잠에서 깬 것도 화가 나는데 소리는 그치지 않고 이어져 다시 잠에 빠지질 못하게 막는다. 밖으로 나가서 전등 불빛을 비췄다. 유진인 자신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그러니 어린 암캐가 자신도 좀 함께 있게 해달라며 사정을 한 것이었다. 무섭고 비는 오고 처음 와 본 곳, 괴물 같은 인간까지 있으니 어찌 사정하지 않았을까?

"야 임마, 너 조용히 안 할래?"

막대기를 들고 다가가니 금방이라도 자지러질듯 공포에 젖어 땅바닥에 쫙 엎드린 채 나를 본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찌하지 못한 채 들어와 이불을 덮었다. 선잠 속에서 '낑낑'대는 개의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얀 우비를 입은 할머니가 빗속을 걸어왔다. 두 마리 개는 다시 몸을 붙인 채 나란히 서있었다. 할머니가 묶어놓았던 암캐에게 다가가니, 유진이가 할머니를 향해 무어라 울부짖는다.

"꺼어어 어어어어어 꺼어어엉."

"그래 미안해."

유진이에게 한 마디를 건넨 뒤 개의 끈을 풀어 쥔 할머니가 구름인 듯 산 위로 난 길을 향해 발을 옮긴다. 바라보는 유진이의 눈빛을 적시며 비는 그침 없이 내린다. 허연 털에도 목걸이에도 거기에 달린 줄에도 빗방울은 내려 흐른다.

■ 유승도 (시인)

현지사 소개 세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오직 현지사에만' 상주하시는 보신의 부처님 (1)

부처님 회상 영산불교에서 법보화 삼신(佛身觀 · 三身說)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 역사 앞에 밝힙니다



현지궁 현지사의 머리깍고 눈뜬 본보살님의 실제 모습

◆ 우주 온 법계에 두루 편만하신 부처님〈法身佛〉

중생들이 윤회하는 육도, 실로 부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땅 한줌에도 그 어떤 생명체에도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은 편만하여 온 법계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주 온 법계와 완전한 계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형상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말하지도, 행위하지도 않고 그저 우주 자체가 되어 여여하게 계실 뿐입니다. 바로 이 부처님이 교학에서 말하는 법신불(法身佛)이십니다.

◆ 부처님은 현지사에만 계신다〈報身佛〉

이 선언은 진실입니다. 불과를 이루게 되면 한분의 부처님은 세 개의 몸(三身)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세 몸을 각각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현지사에만 상주하신다'는 부처님은 보신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 중심이 되는 보신부처님

중생이 수억겁의 수행을 통해 불과를 이루게 되면 형체와 인격,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보신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음성과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32상80종호), 지혜와 복덕, 원력과 자비, 신통과 위신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신의 몸은 형체를 지닌 불신이기 때문에 법신처럼 여기에도 있고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한분의 붓다에게는 오직 하나의 보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 절반정도의 여타 사찰에는 화신부처님〈化身佛〉

보신부처님의 위신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가히 우주적이며 창조주적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셀 수 없는 자신의 분신을 법계 곳곳에 동시에 나툴 수 있으며 각각의 분신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이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의 사찰에 가 계시는 부처님은 화신불이십니다.

◆ 사바세계의 성지들

세계 곳곳에는 성지가 있습니다. 절반쯤 되는 사찰에는 화신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곳을 성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보신의 부처님께서 계신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인도 영축산(석가모니부처님), 중국 청량산(문수보살님), 한국의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홍련암(관세음보살님)를 비롯 사바세계에서 보살행 하시는 여러 보신 부처님들께서 종종 머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성지라 부르고 이 곳을 찾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큰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빛의 도량, 성지중의 성지 현지궁 현지사

만일 보신의 부처님께서, 그것도 기라성 같은 여러 보신부처님들께서 사바세계에 항상 머무시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지사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불과를 이룬 당신의 큰 제자가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과를 이루기 위해 사바세계에 제자가 몸을 받아오면 제자를 외호하고 공부를 이끌기 위해 보신의 부처님들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지 중의 성지가 됩니다. 현지사는 사바세계 유일한 성지입니다. 이제 사바세계 곳곳에서 보살행하시는 부처님들마저도 이곳에서 상주하시게 됩니다.

◆ 중생들의 복전, 수행의 도량

보신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성지,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수행 중 빙의하게 되는 외마가 철저히 차단됩니다. 그 어떤 외마에 의해서도 공부를 방해받지 않는 청정한 수행도량입니다.
이곳 현지사는 보신부처님의 크신 위신력이 발휘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못 이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세세생생의 복전이 될 선근공덕을 쌓는 겁에 한번 있을까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한글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영유아 시기의 교육과 편안한 사후를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방영 일정
• 9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 9월 29일 수요일 오후 10시
• 9월 27일 월요일 오후 10시 •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 9월 28일 화요일 오전1 0시 • 10월 1일 금요일 오후 10시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중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 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⑤

선원의 하루 일과(2)-
아침 공양에서 취침까지

송대 이후 '부작불식' 흐지부지

〈不作不食〉

오후 불식 저녁엔 죽

율종 사찰의 더부살이 신세에서 과감히 독립하여 최초의 선종총림을 만들었던 선불교는, 그러나 시대적 흐름으로부터는 해탈하지 못한 것인지 남송을 지나 원대에 이르러서는 지리멸렬해진다.

예컨대 뛰어난 선어록이나 공안집도 송말 무문혜개(1183-1260)의 <무문관>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정치사회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선사상적인 측면에서 급속하게 저하된 것은 하나의 미스터리이다.

그 이유가 뭘까? 원나라 중후기쯤(1338) 편찬된 <칙수백장청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여기에는 자각종색의 <선원청규>에서는 언급도 없는 축리장과 보은장이 길게 나온다. 왕실의 안녕을 비는 장(章)인데,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의 독창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탁월한 고승의 출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 다른 고찰은 무리이다.

원대에는 고봉원묘의 <선요>와 <중봉어록>이 많이 읽혀졌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려 후기에는 <선요>와 <몽산어록> 등 원대 선승들의 어록이 압도적으로 읽혀졌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그분들의 어록은 <임제록>이나 <벽암록> <무문관> 등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나 된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는 <선관책진>을 많이 읽는데, 이런 선서(禪書)를 읽어서 언제 정법안장을 갖춘다는 말인가? 그 시대에 어떤 책, 어떤 어록이 많이 읽혀졌는가를 보면 그 깊이와 사상적 흐름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선원총림에서는 공양하러 가는 것을 '과당(過堂)'이라고 한다. '재당(齋堂, 식당)으로 가다, 향하다(過)'라는 뜻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을 쓴다.

아침 공양은 6시에 하는데 죽(粥)이다. 그래서 아침 공양을 '조죽(早粥)'이라고 한다. 임제종에서는 아침 공양을 '죽좌(粥座)'라고 한다. '죽(粥)'자만 써도 아침 공양을 뜻한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6시 40분경) 보청(普請, 作務), 즉 울력이 시작되는데, 약 30분-1시간 정도로서 주로 선당과 각 요사, 전각 등 도량을 청소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울력은 주로 점심 공양 후에 있다. 따라서 아침의 보청은 보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송대 이후에는 왕실과 세력가의 토지 기증으로 인하여 선종총림에 막대한 농장이 생기고 일꾼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수행자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나 농작물 재배 등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정신은 대략 여기서부터 흐지부지해졌다고 해도 할 수 있다.

8시부터는 주지화상의 아침 설법인 조참(朝參, 早參)이 행해진다. 조참은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과 함께 '소참(小參)' 또는 '소참법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약식(略式) 법문이다. 대참은 상당설법으로 정식 법문이다. 후대에는 조참 · 만참도 상당설법처럼 행해졌다. 또 5일에 한 번 정례화 되기도 했다. 상당설법을 비롯하여 조참 · 만참 등 모든 법문은 주지(방장)가 한다. 법문은 수행승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설해진다.

10시부터는 아침(오전) 좌선이 시작된다. 이때의 좌선을 '조신(早晨)' 또는 '조신좌선(早晨坐禪)'이라고 하는데, 사시좌선(四時坐禪, 하루 4회 좌선) 가운데 두 번째에 속한다. 좌선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으므로 오전 좌선은 10시 40분쯤 마쳤을 것이다.

11시에 재당(齋堂, 주방 · 부엌), 즉 고원(庫院)에서 운판 소리가 들리면 점심 공양이 시작된다. 청규에서는 "고원(庫院, 주방)의 운판이 쭈르륵 세 번 울리고 이어 대판(大板, 혹은 大鐘)이 울리면 점심을 알리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몇 시에 운판을 치고 대종을 치는지는 말이 없다. 중국 영파의 천동사와 아육왕사, 귀주 홍복사의 점심 공양 시간은 모두 11시이다. 일본 임제종도 11시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11시 30분인데 11시에 하는 곳도 있다.

점심 공양은 반드시 밥이다. 밥을 '재(齋)'라고 한다. 그래서 점심 공양을 '재(齋)' 또는 '재좌(齋座)'라고 하는데 '재(齋)'자만 써도 점심을 지칭한다. '재죽(齋粥)'이라고 하면 점심과 아침을 뜻하는데, 순서상으로는 '죽재(粥齋)'라고 써야 하지만 밥을 앞에 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점심 공양' 또는 '오공(午供)'이라고 한다. 사실 젊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점심은 매우 반가운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아침을 죽으로 요기하고 점심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행이기 때문이다.

점심 공양 후 4시까지, 그리고 4시 이후에서 밤9시 취침까지의 저녁 일과는 매우 복잡하다. 각종 연구서와 청규, 사전류, 그리고 오늘날 중국 · 한국 · 일본 등지의 선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료를 동원하고 있지만, 일치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 이 문제는 시대적 기준보다는 여러 청규와 자료, 그리고 오늘날 중국 · 한국 ·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쓰고자 한다.

현재 중국 천동사의 오후 좌선 시간은 12시-2시까지이고, 아육왕사는 12시 15분-2시까지이고, 귀주 홍복사는 12시-2시까지이다. 중국 선종사원은 거의 일치한다. 2시 이후부터 4시까지는 울력이나 맡은 소임 완수,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오후 좌선 시간은 1시, 또는 2시부터 시작하여 4시까지이다. 하루 좌선 시간이 많은 곳은 1시부터 시작하고, 적은 곳은 2시부터 시작한다. 일본 임제종은 1시부터 1시45분까지는 좌선과 독참(獨參)이고, 2시부터 3시 45분까지는 좌선만 한다. 각 나라의 오후 좌선 시간을 보면 대략 2시간 정도이고 차이점이라면 시작하는 시간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쯤에서 미리 독자들에게 고지(告知)해 둘 것이 있다. 저녁 예불과 저녁 공양 순서인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저녁 공양 이전에 예불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녁 공양 후에 예불을 한다. 선후(先後)에 대하여 <선원청규>는 물론 <칙수백장청규>에도 별 언급이 없다.

중국 항주에 있는 영은사와 영파 천동사, 아육왕사, 천태산 국청사, 귀주 홍복사는 모두 저녁 공양 전에 예불을 하는데, 시간은 대체로 4시 또는 4시 30분이다. 홍복사는 4시이고 아육왕사는 4시 30분이다. 일본의 선종사원에서도 예불은 저녁 공양 이전에 한다. 조동종 영평사는 겨울에는 4시이고 여름에는 4시 30분이다. 임제종사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칙수백장청규> '대중장'에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설명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약석(藥石, 저녁 공양)이 끝나면 중요(衆寮, 요사)에서 나간다. 삼문(三門, 산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혼종(昏鐘)이 울리면 모름지기 먼저 승당의 자리로 돌아가 좌선하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저녁 공양 후에 예불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중국, 일본의 선종사원도 모두 저녁 공양 이전에 예불을 마쳤다는 것이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저녁 예불, 저녁 공양, 저녁 좌선이다.

저녁예불은 4시, 즉 포시(哺時, 申時의 정시각)에 있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사시좌선(四時坐禪, 하루 4회 좌선) 가운데 하나인 오후 좌선을 포시에 했다고 되어 있고,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도 포시에 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예불과 좌선, 만참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선종사원의 하루 일과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공양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도 거의 같다. 사찰에 따라,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따라 30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저녁 예불과 공양이 겨울보다 30분-1시간가량 늦고, 겨울에는 좀 빠르다.

저녁 공양은 '죽(粥)'이다. 그래서 저녁 공양을 '만죽(晩粥)'이라고 한다. 또 저녁 공양을 '약석(藥石)'이라고 한다. 약석은 중국 · 한국 · 일본의 선원에서 똑같이 쓰는 말이다. 약석(藥石)을 우리말로 풀면 '약돌'이라는 말인데, 왜 저녁 공양을 '약석'이라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공양' 항목에서 쓰고자 한다. 원래 붓다시대부터 사원에서는 '오후불식(午後不食)'이라고 하여 오후 12시 이후에는 일절 공양을 하지 않았다.

저녁 공양 후에는 또 좌선이 이어진다. 이것을 '황혼 좌선(黃昏坐禪)'이라고 한다. '해질녘 좌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황혼 좌선에 대해서도 어느 책에서는 "혼종이 울리는 6시 45분에 시작한다"라 했고, 또 어떤 책에서는 "황혼 시각인 8시에 한다"라 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원청규>에는 "혼종(昏鐘)이 울리면 가사를 걸치고 선당에 들어가 좌선한다"는 말이 있고, <칙수백장청규> '대중장'에는 "혼종이 울리면 승당의 자리로 가서 좌선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저녁 좌선, 황혼 좌선은 혼종이 울리는 6시 45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는 저녁 좌선과 황혼 좌선은 애당초 달리 볼 수도 있다. 저녁 좌선은 대략 8시 30분이나 40분경 끝났다. 저녁 좌선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고 일본 임제종도 비슷하다.

저녁 좌선이 끝나면 취침을 한다. 취침은 보통 9시이다. 취침을 정식으로는 '개침(開枕)'이라고 한다. '베개를 열다'는 뜻이다. 잠을 잘 적에는 목침 같은 베개를 사용했는데, 그 베개를 넣어두는 함이 있었다. 함을 열고 베개를 꺼냈기 때문에 '개침'이라고 한 것이다.

개침 10분 전인 8시 50분경에는 곧 불을 끄고 취침하게 됨을 알리는 북과 종을 치는데 이것을 '갱점(更點)'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취침을 점검한다는 뜻인데 물론 이 이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손발 씻는 일 등을 끝내야 한다.

이어 정종(定鐘)이 울리면 불을 끄고 모두 취침한다. 좌선을 하던 그 자리에서 자는데, 이불 한 쪽은 깔고 한 쪽은 덮고 잔다. 잠을 잘 때는 오른 쪽으로 누워서 모로 잔다.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는 것이다. 이로써 수행자들의 하루 선당 일과는 끝난다. 내일을 위하여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간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이어지는 선당의 하루 일과는 취침하는 것으로서 마친다. 사진은 일본 영평사 선당의 취침 모습. 좌선하던 그 자리에서 이불 한자락을 깔고 취침한다. 군 내무반에서 장병들이 취침하는 모습과 같다. 출처=사진집 <영평사>, 1974년 조동종 종무청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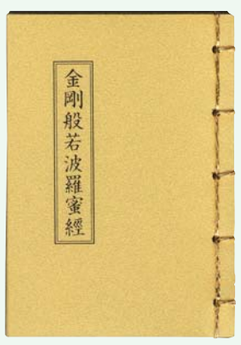
아침 공양은 죽으로 공양 후엔 울력

중국 · 일본은 공양 전에 한국은 공양 후 저녁 예불

저녁좌선 후 9시 개침 정종 울리면 모두 취침

좌선하던 자리에 오른쪽으로 누워 모로 잔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6 턱의 중요성

중추신경계 깨트리는 핵심 원처

턱이 척추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부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턱관절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깨뜨리는 가장 핵심 원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척추구조를 가장 빠르게 정상위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턱입니다. 턱관절 주위에는 수많은 혈관, 신경, 임파가 분포돼 있으며 특히 12개의 뇌신경 중 9개의 뇌신경이 턱을 지나며 이곳의 영향을 받고 있는 관련 근육만 136개나 됩니다.

턱에 분포된 수많은 원심 · 구심성 뉴런은 시시각각으로 턱관절에 가해지는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며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뇌를 비롯한 신체의 여러 분야에 즉각적으로 반응 합니다.

턱의 불균형은 씹는 능력의 불균형을 가져와 뇌의 순환 및 호흡체계를 깨뜨림과 동시에 내분비의 모든 호르몬분비장애를 유발합니다. 또한 코에도 영향을 미쳐 코골이와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안면과 두개골의 뒤틀림에 의해 안면비대칭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안면비대칭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어 어느 날 '딱'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릴 때 마다 통증 및 두통이 생긴다면 턱의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귀에서 '웅' 소리가 나는 이명증(耳鳴症) 또한 턱 이상의 대표적 증세입니다.

일생동안 가장 많이 움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위가 바로 턱관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턱 불균형은 전신체형의 불균형을 손쉽게 유발합니다. 그래서인지 턱이 발달된 생명체는 전신의 균형미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턱의 문제로 인한 안면비대칭.

턱이 유독 발달된 포식동물 중 하나인 하이에나는 사자나 기타 육식동물보다 턱이 더욱 발달됐습니다. 하이애나는 턱 근육인 저작근(Masticatory Muscle, 咀嚼筋)을 통해 턱의 안정성 유지시키며 전신의 탄탄함과 강직성을 통해 자신의 생존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턱의 불균형은 탈구(Dislocation, 脫臼)와 같은 급성의 경우 증세가 호전되는데 2주가량이 걸리지만, 대개의 경우는 장기간 턱의 문제가 발생해 체형이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적인 체형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균적으로 3~6개월의 교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턱의 불균형은 뇌의 순환 및 호흡체계를 깨뜨리고

내분비의 호르몬분비 장애를 유발시킨다

필요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턱관절의 손상(턱관절 내 디스크의 손상)이 심해 정상적인 관절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입니다. 만일 교합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교합에 대한 치아 교정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V라인'이라고 해서 갸름한 얼굴라인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계란형의 얼굴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얼굴마사지, 다이어트 보다 자신의 턱 비틀림 정도를 체크하고 전체적인 체형 교정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체형교정은 바른 자세와 균형 잡힌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굴이 비뚤어지는 것도 미리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턱으로 몸의 다른 곳에 이상이 느껴 질 때는 반드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전신의 체형과 자세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쁘고 대칭이 맞는 균형 잡힌 얼굴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턱을 괴는 습관이나 구부정하게 다니는 습관 등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자세가 구부정해 지지 않도록 평상시 반듯한 자세를 갖기 위한 노력에 게을리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4 만성질환 한방치료

항상성 유지의 면역능력 강화 필요

시중에서 '만성질환을 한방요법, 자연요법, 민간요법 등으로 고쳤다'고 말하는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개에는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온갖 만성질환을 고치는 방법이 한국에 다 있는데 노벨의학상은 어찌하여 엉뚱한 곳에만 수여되는지 혼란을 느낄 정도다.

직업이 한의사이다 보니 암을 고쳤다는 비방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암환자의 가족마다 암에 대한 한방요법을 물어 온다. 이러저러한 민간요법을 써봤는데 자신은 왜 낫지 않느냐는 일종의 항의성 질문도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찜찜한 기분은 감출 수 없다.

필자는 동의보감의 몇 줄을 금과옥조같이 여기며 기적의 한방요법이라고 떠드는 이들을 볼 때면, '그런 것도 과연 한방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업보를 어떻게 다 갚으려 하는지 때로는 연민의 정도 느낀다. 모든 질병은 일반적으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질환은 그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급격히 진행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비를 넘기게 되면 질병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완치(完治)'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같은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는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당장에는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질병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완치(完治)'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치료라는 말보다는 조절이라는 말을 쓴다.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고 인체 자체의 힘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절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치료라고는 하지만 치료된 것 같이 보일 뿐이다.

당뇨병의 경우 초기단계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잘 하면 혈당을 정상인과 비슷하게 조절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 그 환자에게서 혈당이 오를 수 있는 경향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금주 · 금연하면 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약을 끊고도 혈압을 정상인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간경화의 경우도 복수, 소화기 출혈, 혼수 등의 합병증을 치료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약물에 의한 치료에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로 단계를 낮춰 조절하는 것일 뿐 질병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은 그 질병이 일어난 것이 서서히 일어난 만큼 그 조절과정도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 질병이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억지하고 정지시켜서 질병의 단계를 낮추도록 해야만 한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 그 질병이 진행돼온 인체 내의 소인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 시작됐어도 인체의 다른 기능이나 조절능력이 보상작용을 일으켜 정상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한계를 넘게 되면 질병의 증세를 보이는 것이 만성질환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조절도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면역능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소인들을 줄여나가면 질병의 단계는 낮춰 질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약을 한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답은 그 질병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성병에 대한 한방요법의 주안점은 그러한 질환을 일으킨 인체의 불균형상태를 해소시키고 정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인체의 조절능력을 극대화시킴에 있다. 자체능력만으로도 모자랄 때에는 이미 검증된 약들의 도움도 받아야만 한다.

만성병에 한약이 많이 쓰이는 것은 한방에는 양방과는 다른 보기보양(補氣保養)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인체가 본래 갖춘 조절 면역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개념이 있기에 만성병을 일으킨 부조화상태에 대한 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의 단계가 한참 진행됐을 때는 한방요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성병과 한방요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울러 자신의 몸을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내맡기지 않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성공과 건강을 돌려주는 우주의 대기운!

빙의치유의 정석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 직장인, 자영업자, 종교인, 학생, 가정주부, 사업가, 군인, 연예인, 교포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아따도 외로워도 혼자만이 감수하던빙의 치료와 구원의 결정판!

빙의시대에 등불이 되어줄 명쾌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선화도를 통하여 대우주의기를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기 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을 포기한 이시대의 냉가슴을 후련하게 달래주는 성공치유의 선화도와 빙의진단요령, 성공을 이끄는 우주의 대 기운!

이책은 오랜동안 빙의,우울증,신병.병명이 나타나지 않는분,불치병등 고질병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전에 찾아온 연구소에서 실지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서술한 생생한 체험기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 금강굴 안의 촛대 4개 모두에서 촛불서광을 받은후 20년간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온갖 고행을 하게 된다.
37세에 드디어 받은 대우주의 기로 인해 하늘문이 열려 신비의 나라와 소통하게되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운명의 이정표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금메달을 향하는 선수에게 모진 훈련이 기다리듯 저자 역시 무지 힘든 역경과 시련의 시험대에서 대우주의 기운과 선화도의 대기운을 아픈이 들에게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나누어 주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화합하라는 대우주의 기운으로 온세상을 아름답게 다듬고자 불철주야 애써온 저자의 변함없는 진실함을 기다리다 기적같은 환희를 체험한 회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못이겨 드디어 책을 저술하게 된 저자는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진실의 힘"을 많이 접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본서의 특징은 일반인들이 흔히 잘모르지만 실생활에는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으며 골만 잘 집어넣는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왜 골을 잘 집어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골도 잘넣고, 골이 잘 넣어지면 주변동료들과 팬들과도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확실하게 정돈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질문명만 앞서고 정신 문명이 핍박해 질수록 늘어만 가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한줄기 등대불같은 이 책 이야말로 빙의분야에 새로운 정석으로 다가가는 최상의 필독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2010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었다.

눈물

슬퍼서 눈물이 나고
기뻐서 눈물이 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고
아파서 눈물이 나고
배신당해서 눈물이 나고
절망해서 눈물이 나고
가난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헤어짐에 눈물이 나고
만나지 못해 눈물이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눈에 먼지가 들어 눈물이 나고
배고픔에 눈물이 나고
억울함에 눈물이 나고
아픈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후회해도 눈물이 나고
참회의 눈물이 나고
그리움에 눈물이 나고
사기 맞아서 눈물이 나고
죽음에 눈물이 나고
원망의 눈물이 나고
부부싸움으로 눈물이 나고
속아서 눈물이 나고
재물을 잃어 눈물이 나고
자녀로 인해 눈물이 나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눈물이 나고
책을 읽으며 눈물이 나고
영화를 보며 눈물이 나고
술을 먹고 눈물이 나고
갇힌곳에서 벗어나 눈물이 나고
무서워 눈물이 나고
말실수를 해서 눈물이 나고
꾸지람을 들어 눈물이 나고
사업실패로 눈물이 나고
반가움에 눈물이 나고
잠이 오지 않아 눈물이 나고
배우지 못해 눈물이 나고
삶의 고달픔에 눈물이 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 눈물이 나도
부모를 생각해서 흐르는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이다.

선화도와의 만남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감동과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의기연구소 - 도솔 -

선화도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가를 구원하고 병을 치유하시고 고통을 덜어주고 악함을 없애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사람처럼 올 수 없으므로 그림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실제 선화님을 영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화도는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그려진 적이 없으며 세계최초로 우리 인간 세상에 그림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화도는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며 대우주를 관장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오신 실존 인물입니다.
선화도를 한분 그릴 때마다 대우주를 관장하는 곳에서 선화님들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선화도는 배워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고 절대능력을 받아서 그려지는 신비한 그림으로 마음의 평화를 주며 가족에게는 화목을 주는 동시에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헤아리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소원을 들어주시며 액운을 막아주며 우환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선화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려지며 10초면 그려집니다.
선화도가 다르게 그려지는 이유는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선화님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화님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 이념을 초월 선의 힘으로 하나되게 하여 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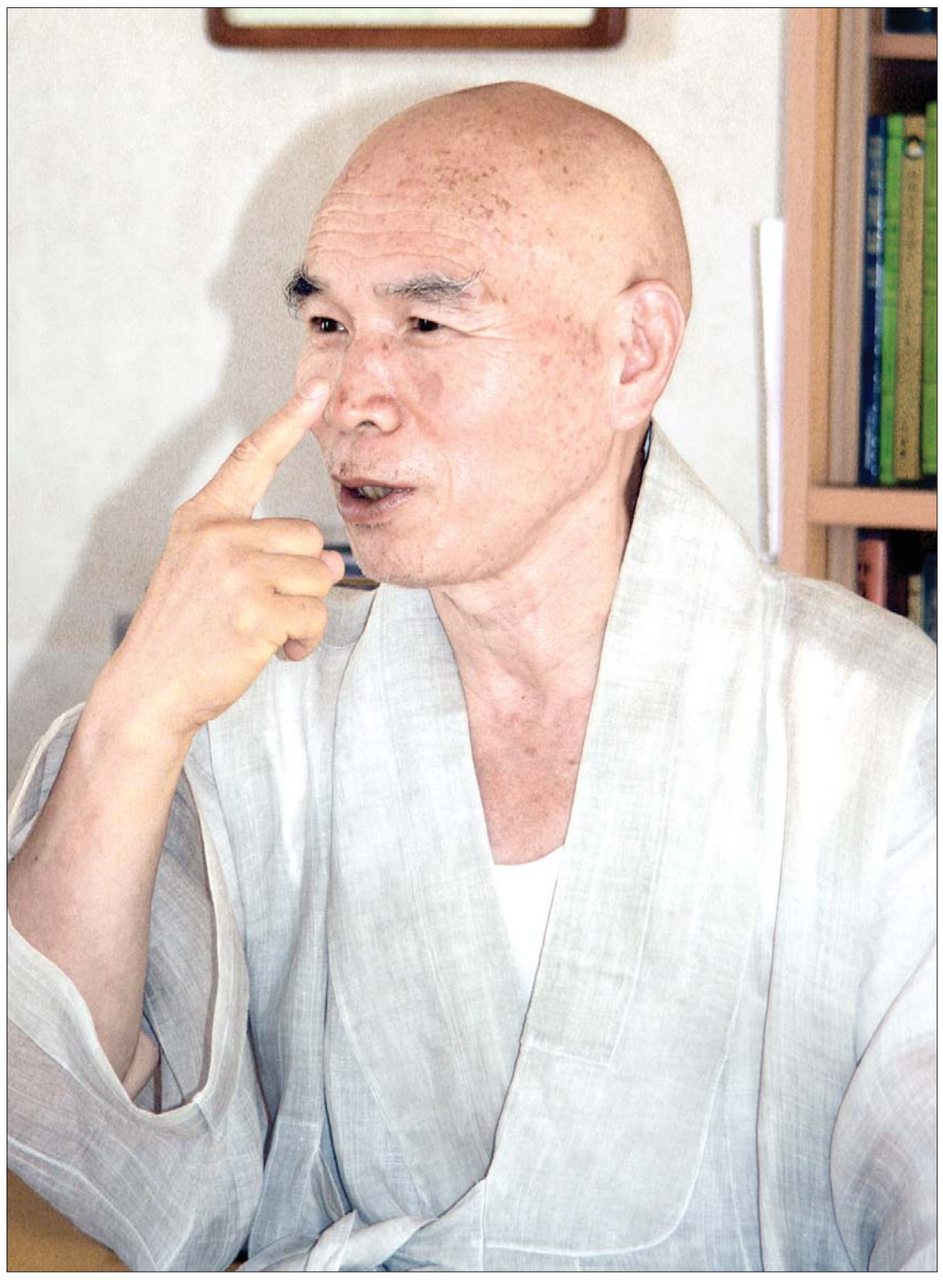
선화도를 소장한 분들이 체험한 사례들

◇몸에서 열기를 느낀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다.
◇사업이 번창해졌다.
◇평소 불안한것이 사라졌다.
◇가정불화가 사라졌다.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늘상 웃음이 넘쳐난다.
◇때로는 환희심이 일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들꽃이나 박하 향기, 은은향 향내를 맡았다.
◇선화도를 보고 슬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몸과 마음을 씻어준다.
◇되는 일이 없었는데 선화도를 소장하고부터 일이 잘풀렸다.
◇선화도에서 방출되는 대우주의기를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았다.
◇눈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액운이 막아졌다.
◇마음이 편해지며 기분이 좋다.

책 주문 : 전화 02-562-1880, 교보문고 1544-1900 우주의기 연구소 043)237-7588 www.spaceri.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57번지 죽암빌딩 201호 선화도 문의 043)237-7588

꿈인 줄 알고 깨어나려고 애써야 꿈을 깬다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린 늦여름. 흙빛을 띤 지리산 섬진강의 강변도로를 따라 가다가 하동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유명한 '십리 벚꽃길'을 지나면 쌍계사로 건너가는 다리가 보인다. 여기서 10km정도 계곡의 물길 따라 가다가 범왕리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면 칠불사(七佛寺)가 나온다. 지리산 반야봉 동남쪽 해발 800m 고지에 자리잡은 칠불사는 가락국의 태조요,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가 와서 수도한 후 모두 성불한 성지로 전해진다.

이날 칠불사에 모인 일행은 다음카페의 불교동호회 '구도역정(cafe.daum.net/kudoyukjung)'의 회원 10명. 하루 전 지리산 무영암에서 모임을 가진 회원들은 이날 칠불사로 넘어와 마침 동석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과 송도근 前 건교부불자회 회장 내외 등과 함께 우리 시대의 대강백(大講伯)인 칠불사 회주 통광(通光) 스님을 뵙고 즉석 법문을 듣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통광 스님께 일제히 절을 한 뒤, 건교부 공무원인 이상호 거사가 카페를 소개하자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자연스럽게 법의 문을 여신다.

"불교는 인과론을 말하지만, 숙명론은 아닙니다. 금생에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생각에 도심(道心)을 발하고 수도해서 오도(悟道)하면 업의 몸이 바뀌어 혁범성성(革凡成聖: 범부의 탈을 벗고 성인이 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할 팔자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자로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요>에서는 한 생각을 일으켜 현현한 관문을 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돈제망념 오무소득(頓除妄念 悟無所得: 단박에 망념을 제하고 무소득을 깨닫는 것)'한 돈오돈수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성불하는 것입니다. 보통 업은 사주 · 관상으로 나타나는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은 업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주나 관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법문의 서두를 마친 통광 스님이 차를 권하자, 불자들이 궁금증 보따리를 풀어낸다.

"재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대혜종고 선사는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서툴게 하라'고 했어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다생(多生)의 습성은 염불과 참선 등 수행을 통해 서툴게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은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불에 잘 타지만, 물에 담군 나무는 잘 타지도 않을뿐더러 불마저 꺼트립니다. 물에 젖은 나무는 말려서 불을 붙여야 겠지요. 중생이 성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열반경>에서 밝히고 있지만, 공부가 잘 안되는 것은 업력 때문입니다. 이럴 때 참회와 기도와 더불어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 번뇌에 찌든 마음을 맑고 밝히면 선지식의 말 한 마디에 언하대오(言下大悟)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서툰 반야지혜를 익숙하게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서툰 것을 익숙하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망상일 것입니다. 화두나 진언, 주력을 할 때도 망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망상 부리는구나'하고 알아차렸을 때 그 망상을 없애려 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염불을 놓쳐 망념이 들 때 번뜩 챙기면 망념이 '홍로상 일점설(紅爐上 一點雪: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위에 눈을 조금 뿌린 상태)'이 되어 사라집니다.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과 경계가 사라지고 본래의 천연(天然)한 자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견성입니다."

또 다른 불자가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부딪치는 경계의 하나를 예로 들며 질문한다.

"스트레스와 번뇌 · 망상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도를 닦는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느냐, 참나를 깨달을 것인가, 물질과 정신을 함께 돌보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언젠가 무비 스님이 '요즘 선지식 중에 용타 스님이 최고'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용타 스님은 '~구나, ~겠지, ~감사'라는 3대 보살을 자주 말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 '오늘은 늦게 들어오는구나, 이유가 있겠지, 늦게라도 들어오니 감사하구나'이렇게 하면 성질이 나다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퍼뜩 성내지 말고 '구나보살, 겠지보살, 감사보살'을 통해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조 스님은 <절요>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살피는 것이 더딜까 두려워 하라'고 했습니다. 본참공안(本參公案)을 하거나 주력이나 염불을 할 때 망념이 들어올 때 퍼뜩 살피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 근본과 통하게 됩니다. 방하착(放下着: 집착을 내려놓음)을 통해 바로 본래면목을 오입(悟入: 깨달아 들어감)하는 것입니다."

통광 스님은 생활 속의 마음공부를 설명하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자상한 보충설명을 곁들인다.

"묵조선은 묵묵히 살피는 수행이지만, 간화선은 대신근, 대분심을 바탕으로 한 큰 의정(疑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는 무엇보다 화두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바탕으로 분발심을 내어 정진해서 화두에 대한 의정이 똘똘 뭉치면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로 나아가 일념을 이루고 견성오도 하여 마침내 구경각(究竟覺)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경각이라 함은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까지 떨어져 나간 경지입니다. 대혜종고 선사는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하나로 똘똘 뭉쳐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면 일체 의심이 다 없어진다고 했지요. 물론 화두 공부시의 의심은 경전과 어록, 생활 속의 의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두를 생명처럼 여겨서 천 길 봉우리에서 돌을 던졌을 때 저 밑바닥까지 쭈욱 연결될 때 깨침이 온다고 <선요>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주일, 한 달은커녕 세 시간, 30분만 몰아쳐 봐도 일념이 되기가 어려움을 알 것입니다."

진지한 구도자들의 눈빛에 통광 스님은 더욱 세밀하게 공부단계를 설명한다.

"돈오점수를 말씀하신 보조 스님은 공부의 경계를 네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경전과 조사어록의 법문을 통해 '나고 죽음이 본래 없음'을 이해한 지무생사(知無生死), 생사가 본래 없음을 체험한 체무생사(體無生死),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에 계합해 견성오도 한 계무생사(契無生死), 깨달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용무생사(用無生死)가 그것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가섭 존자가 뒤늦게 도착해 인사를 올리자 관밖으로 발을 내미셨다는 곽시쌍부(槨示雙趺)나, 달마 대사가 입적 후 짚신을 둘러메고 인도로 돌아갔다거나 하는 일들이 용무생사의 경지라 볼 수 있습니다.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 세상에서 불생불멸 하는 본래면목을 체험해야 초견성이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어서 두 번, 세 번씩 깨쳤다는 기록이 전해져오는 것입니다."

통광 스님은 법문을 청한 이들이 인터넷 불교동호회인 점을 감안, 우리 시대에 맞는 화두 공부법에 대해서도 친절한 주석을 덧붙인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송나라 때의 화두가 통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게 있습니다. 견문각지(見聞覺知: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것)" 하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이 뭣고?' 화두를 많이 합니다만,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견문각지 하게끔 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벽 선사는 '견문각지 하게끔 하는 자체,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 일으켜 그 당처를 찾으려 하면 바로 어긋나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를 동념즉괴(動念卽乖)라고 합니다.

화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본체와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문이 모두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무엇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듣는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은 더 줄여서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했지요.

우리는 꿈속에서 꿈을 이야기하지만, 꿈속에서는 꿈밖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녘에 꿈을 깨려고 애를 써야 깨듯이, 꿈인 줄 알아야 언젠가는 꿈을 깨게 됩니다. 생사라는 큰 꿈을 깬 후 석가모니 부처님은 녹야원에서부터 49년간 설법하셨지만, 한 마디로 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깬 근원자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불자가 일부 수행자들이 마음의 소소영영(昭昭靈靈: 밝고 신령스러움)한 당체를 힌두교의 아트만(atman)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 이에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을 한다.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

인과론은 숙명론 아냐… 업 바꿀 수 있다는 뜻

공부는 서툰 반야지혜를 익숙하게 하는 과정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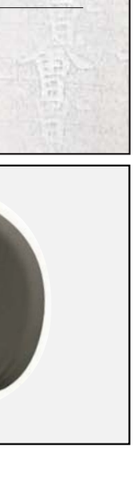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新제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공예양초



① 밀납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③ 밀납 PC컵 초 5.5ϕ×4cm(연소시간 약 8시간)
④ 악쑥 야광 연꽃 양초 7.0ϕ×33cm
⑤ 악쑥 1호 그림 양초 5.9ϕ×18cm
⑥ 한봉 금강경 세트 5.9ϕ×18cm

⑤

⑥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본래심으로 사는 게 선

<禪>



物)'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대신,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 우리의 본마음은 항상 청정하다)'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소소영영한 그 자리가 한없이 밝게 늘 존재한다고 보면 상견(常見)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소영영한 자리를 반조해 보면 깜깜하여 공적한 자리입니다. 체(體)로 보면 공적(空寂)하지만, 용(用)으로 보면 영지(靈知: 신령스런 지혜작용)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불성자리를 '청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사어록을 쉽게 단정 지으며 1600여 년의 불교사를 부정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공적'과 '영지'는 체와 용으로서 원융무애한 불이(不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으로서의 자리를 쌍차쌍조(雙遮雙照: 동시에 부정하고 동시에 긍정함)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광 스님의 명쾌한 설명이 이어지자 질문자를 비롯한 대중은 그동안 막혔던 의문이 한꺼번에 해소된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스님은 1시간을 훌쩍 넘긴 즉석 법회를 마감하며 육조 스님의 법문 그대로 생활선을 이어가라고 당부한다.

"육조 스님은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청정(本自淸淨)하니 단용차심(但用此心)하면 직료성불(直了成佛)하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자성은 본래 항상 청정하니 이 마음(참마음)으로 살면 곧 바로 성불해 마친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한 마디 속에 불교의 대의와 수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랜 세월 선교쌍수(禪敎雙修)의 공부와 더불어 칠불사 복원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해 후학의 사표가 되고 있는 통광 스님. 스님의 진실하고도 간곡한 법문에 감사 인사를 올린 일행은 점심공양을 마친 후 상좌 자응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 중인 자혜정사를 방문해 차담을 나눴다. 일행은 이어 쌍계사 건너편 찻집으로 내려가 회향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각자 갈 길은 멀지만, 저마다 지고 다녔던 짐들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은 듯 승용차의 시동소리 조차 가볍기만 하다. 도반들은 이날 얻은 양식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쓰는 지혜작용을 마음껏 펼칠 것이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 본지 논설위원)

통광 스님은 ...

1940년 지리산 칠불사 인근 의신마을에서 출생한 스님은 범어사에서 여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59년 명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방 선원과 강원에서 선교를 함께 닦았으며, 월정사 탄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공부해 1977년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아 경허 – 한암 – 탄허의 강맥을 이었다. 폐허가 된 칠불사를 1978년부터 복원했으며, 쌍계사 주지와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칠불사 회주 겸 쌍계사 강주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역서로 <고봉화상선요> <초의다선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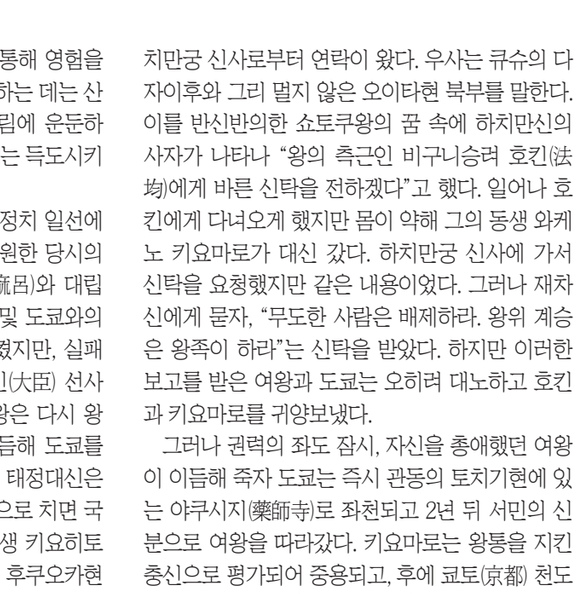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왕이 되고자 했던 승려 도쿄(道鏡)

한국에 신돈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쿄(道鏡, ?~772)가 있다. 불교가 권력의 힘을 탔을 때는 어느 나라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기 마련인가 보다. 더욱이 도쿄는 신돈보다도 600년 전에 일본의 왕이 되고자 꿈을 꾸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전말은 이렇다.

나라(奈良)시대 말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태자로서 왕이 되었던 코켄(孝謙)상왕은 한 승려를 총애하기 시작했다. 쥰닌(淳仁)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힘들었던 심신을 치료한 간병선사 도쿄였다. 간병선사는 주력과 탕약만으로 왕의 치료를 전담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도쿄는 주로 점성술과 관계가 있는 숙요(宿曜)비법을 통해 치료의 효험을 보았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설에서 보듯 더욱 밀접해졌다는데 그 진위는 명확하지 않다.

도쿄는 유게씨(弓削氏)로 조상이 활을 만드는 대륙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법상종의 기엔(義淵)과 화엄종의 료벤(良弁)에게 수학하고, 영산으로 알려진 나라의 카츠라기산(葛城山)에서 밀교계통의 수행법인 여의륜법을 수련했다. 도쿄는 산림수행을 통해 영험을 얻었다. 당시 지계청정한 승려를 배출하는 데는 산림수행이 중시되었는데, 쥰닌왕은 산림에 운둔하여 청정한 수행을 10년 이상 한 자에게는 득도시키라고 명하고 있을 정도였다.



나라현과 오사카부 사이에 있는 표고 960m의 카츠라기산(葛城山)의 일부. 고대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많은 산림수행자가 모여들었다.

어육류 공물 금지 등 불교 국정 전면에 내세워

도쿄의 기세는 날로 높아져 서서히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다. 쥰닌왕의 왕위계승을 지원한 당시의 권력자 후지와라노 나카마로(藤原仲麻呂)와 대립하기까지 했다. 나카마로는 코켄상왕 및 도쿄와의 사이가 악화되자 764년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참살을 당했다. 도쿄는 바로 대신(大臣) 선사의 지위에 올랐다. 쥰닌왕을 폐한 상왕은 다시 왕위에 올라 쇼토쿠(稱德)왕이 되고, 이듬해 도쿄를 태정대신(太政大臣) 선사에 임명했다. 태정대신은 행정 최고기관의 장을 말한다. 요즈음으로 치면 국무총리인 셈이다. 심지어는 도쿄의 동생 키요히토(淸人)에게는 서쪽의 정부라고 일컫는 후쿠오카현의 다자이후(太宰府)의 장관직이 맡겨졌다.

이 시기 도쿄는 모든 정책에 불교를 우위에 두었다. 방응사(放鷹司)를 폐지하고 방생사(放生司)를 두어 매나 개를 길러 수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조류를 산과 들에 풀어 주었다. 비록 불국사 석가탑의 것보다 제작년도가 몇 십 년 늦지만 목판과 동판인쇄의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넣은 삼중목제의 100만 소탑을 만들어 당시의 10대 사찰에 10만기씩 봉헌했다. 현재 호류지(法隆寺)에는 원형에 가까운 300기 정도가 남아 있다. 소위 불교정치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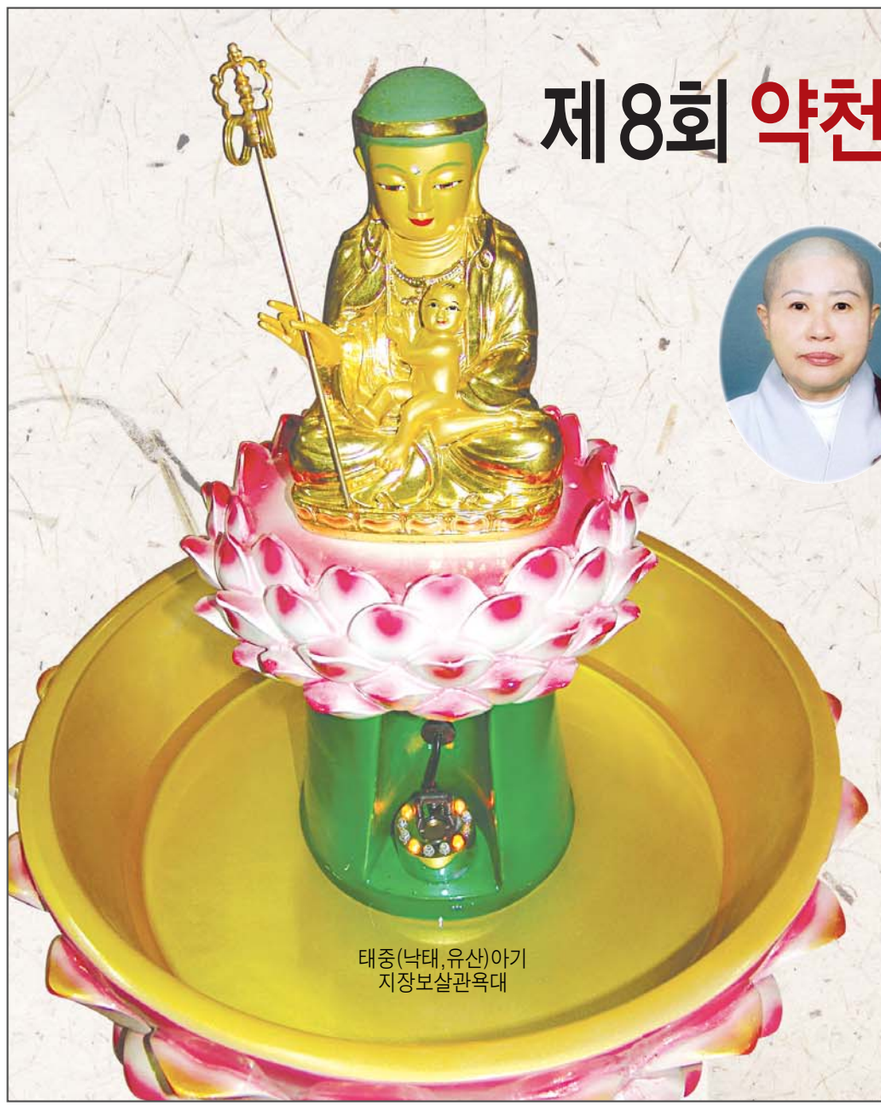
766년, 그의 수하 승려 키신(基眞)이 나라의 스미데라(隅寺)에 안치된 비사문천상(毘沙門天像)의 태내에서 휘황찬란한 불사리가 나왔다고 한 것을 들은 여왕은 도쿄의 선정이 뛰어난 덕분이라고 고무되어 도쿄를 법왕에 임명했다. 왕에 준하는 지위에 오른 것이다.

3년 뒤인 769년 드디어, "도쿄를 왕위에 올리면 천하는 태평하게 되리라"고 하는 신탁이 왕실의 조상신 하치만신(八幡神)을 모시는 우사(宇佐)의 하치만궁 신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사는 큐슈의 다자이후와 그리 멀지 않은 오이타현 북부를 말한다. 이를 반신반의한 쇼토쿠왕의 꿈 속에 하치만신의 사자가 나타나 "왕의 측근인 비구니승려 호킨(法均)에게 바른 신탁을 전하겠다"고 했다. 일어나 호킨에게 다녀오게 했지만 몸이 약해 그의 동생 와케노 키요마로가 대신 갔다. 하치만궁 신사에 가서 신탁을 요청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차 신에게 묻자, "무도한 사람은 배제하라. 왕위 계승은 왕족이 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여왕과 도쿄는 오히려 대노하고 호킨과 키요마로를 귀양보냈다.

그러나 권력의 좌도 잠시, 자신을 총애했던 여왕이 이듬해 죽자 도쿄는 즉시 관동의 토치기현에 있는 야쿠시지(藥師寺)로 좌천되고 2년 뒤 서민의 신분으로 여왕을 따라갔다. 키요마로는 왕통을 지킨 충신으로 평가되어 중용되고, 후에 쿄토(京都) 천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신탁은 도쿄의 동생이 다자이후에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사리 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 도쿄와 최고 권력자 여왕과의 관계는 기발한 상상력이 증폭된 소설의 주제로 현대에 와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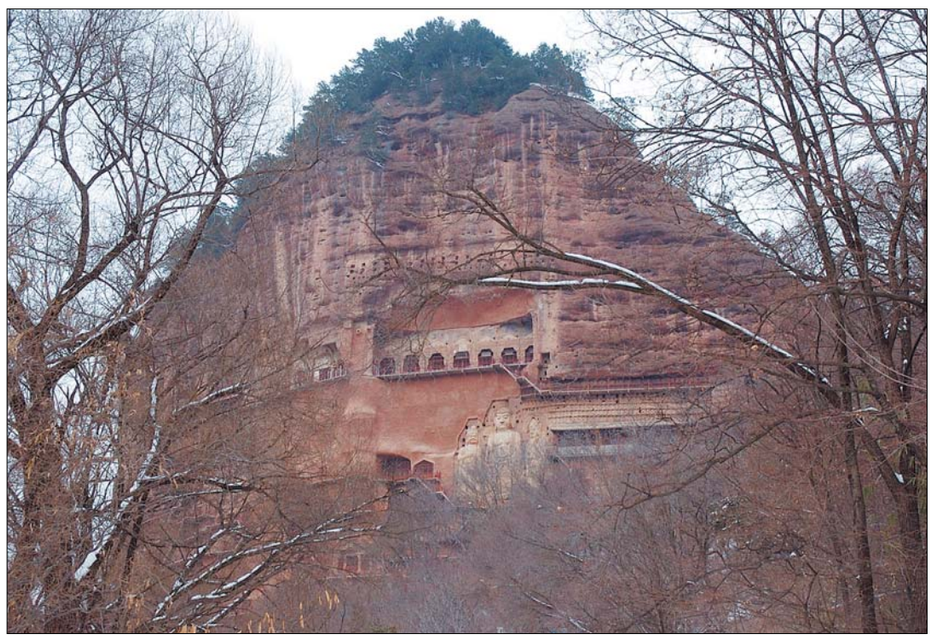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❼ 맥적산 석굴

불교 정착지에서 중심지로 발전

병령사가 위치한 난주에서 중국 내륙으로 내려오면 천수(天水)라는 도시를 만난다. 천수에서 다시 동쪽으로 45Km를 가면 맥적산(麥積山)을 만나게 된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서는 맥적산에 대해 "북쪽으로 청위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양당에 접해있다. 산들이 오백리나 이어져 있는데 그중에 맥적이 있다. 그중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백만 개의 보리더미를 쌓은 것과 같다고 해서 맥적산이라고 불렸다"라고 기록돼 있다. 또 "가파른 절벽에 돌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 만 개나 되는 감과 천 개나 되는 방이 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나 신의 작품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맥적산 석굴 전경. 거대한 불상은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릿단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산에 절벽을 파고들어가 새긴 신앙심은 오늘도 보는 이들에게 경이로움을 품게 한다.

맥적산의 우뚝 솟은 모양은 마치 보릿단을 쌓아 올린 것과 같다. 이러한 산의 서남쪽과 서쪽, 동쪽에는 석굴이 있다. 석굴의 높은 곳은 지면에서 60~70m에 이른다. 이 석굴이 주목되는 점은 주변경치나 석굴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에 상당히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5호16국시대 중국 북방의 불교국가 중 석굴 조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국가는 북위(北魏; 386~534)다. 앞서 언급한 서진이나 다른 5호16국의 국가들이 불교를 옹호했지만 북위는 불교에 대한 열렬한 신앙으로 수많은 석굴을 개착했다. 북위 황실의 불교는 몇 차례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북위불교의 흐름을 크게 바꾼 것은 북위가 화북(회수 이북 지방으로 중국의 북방지역 전역을 뜻함) 지방을 통일한 439년에 북량지역(지금의 돈황 난주, 천수 일대)에서 많은 인구를 당시 수도였던 평성(平城, 현재 산서성 대동)으로 이주시키면서부터다. 북위불교는 북량지역의 불교를 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는 돈황 석굴과 같은 거대한 석굴 조영불사로 드러난다.

북위시대 석굴 조영불사는 현고 스님의 영향이 크다. 북량 지역에서 활동한 현고 스님은 439년에 서진이 북량을 정복했을 때, 서진 창건조 하남왕의 외삼촌 양평왕(陽平王) 두초(杜超)에 의해 수도 평성에 초빙돼 국사로 모셔졌다. 현고 스님은 서진이 멸망한 뒤 북위가 평성 지역에 진출 후에도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북위 태자였던 공종이 태무제와 불편한 관계가 돼 현고 스님에게 괴로움을 호소하자 금광참법(懺法)으로 태무제가 태자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꿈을 꾸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현고 스님의 주수행처가 바로 맥적산이었는데 현고 스님이 거주했을 무렵에는 100여 명의 스님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맥적산 석굴의 개착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북위는 강력한 국가 주도 하에 불교를 발전시켰다. 현고 스님의 영향으로 맥적산 석굴은 중국불교의 중심지로 자리했다. 현재 남아 있는 맥적산의 유적들은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로 석가모니불상과 교각미륵보살상 이불병좌상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설명한 북위시대에 유행한 법화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52 수덕사의 해질녘



칠백년 묵은 대웅전과 천년쯤 묵은 그림자가 마주 앉은 저녁. 수덕사. 단청은 날아가고 석탑의 그림자는 돌이 되어간다.

어느 도량이든 대웅전 앞에 서면 마음도 달라지고, 눈빛도 새로워진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법당이면 법당일수록 더욱 더 그러하다.

'먼 것'이 주는 막연함이 알지도 못하는 기억을 찾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처님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먼 것'으로부터 오는 그 막연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바람 부는 수덕사의 저녁. 단청이 또 날아가고 석탑의 그림자는 부서진다.

석탑의 그림자를 밟으며 법당 앞을 지나간다. 달라지는 마음, 새로워지는 눈빛으로 늘 걸을 수 있다면….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4도 동방성불편복계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제14도부터 19도에 이르기까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14도는 동방의 아촉비불, 수미산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이 제각기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고 아미타경을 믿기를 권하고 있다.

동방의 제불들은 각기 공중에 떠있는 원 안에서 연화좌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여래들이 앉아 있는 원들은 모두 구름에 싸여있다.

이 도상은 8번째 목판 원판의 후반부 일부에서 9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2/3까지 이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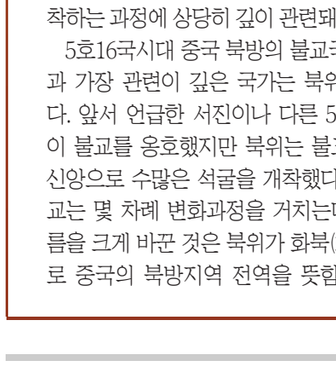
"사리불아, 내가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익을 찬탄함과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등 이와 같은 항하사수의 여러 부처님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넓고 긴 혀의 모양)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일컬어 찬탄하시는 것을 믿을지니, 일체의 제불이 호념(불보살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 '부처님이 보호하여 준다'는 것이며, 호지(護持)하여 잊지 아니하는 것)하라."

(舍利弗 如我今者 讚嘆阿彌陀佛不可思議功德利 東方 亦有阿閦鞞佛須彌相佛大須彌相佛須彌光佛妙音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종교의 생명은 믿음이다. 믿음이란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어렵다.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동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까지 내세우면서 간곡하게 설법하는 장면을 보면 그 공덕을 믿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염불함에 앞서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야 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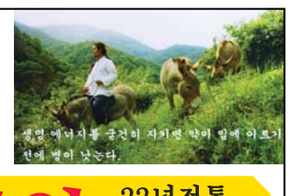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4도 동방성불편복계장엄(東方聖佛偏復界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껍질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 에 인체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액인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 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 인증번호 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완전무농약)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콩팥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젠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랏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등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간장보호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

·생 오 미 자 1kg 10,000원
·건 오 미 자 1kg 70,000원
·오미자원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오미자즙 1Box(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56
계좌번호 :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주문전화 011-9377-896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자·생·활·정·보

11 | 제 803호 |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바라무,

작법무, 범음범패

010-4870-8359

사찰 종무실

여 사무원 구함

pc, 운전 능숙자

▷부산

051)365-0524

011-9323-3712

절에 일하실 공양주, 처사 구함 가능하면 부부 원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011-404-1284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현재의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011-885-8989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보림사

02) 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읍내 옆 소나무 향기 그윽한 사찰 공양주 모심

▷영덕

010-7109-328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53)851-1080

비구 부전스님 (50세 이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266-0330

011-551-17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011-527-0637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1. 극락사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대학) 수시 접수중
2. 극락사 명상대학 (위빠사나-간화선) 수시 접수중
3. 극락사 행자모집 안내 (4대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육복지 2) 의료복지 3) 노후복지 4) 노후연금
4. 극락사 추모원 (맑은숲 걸어서 극락으로..(나들이공원) 개인단 • 부부단 • 가족단(조상,부모,형제 합동) • 특별단
5. 위치 : 서울시 지하철 양원역에서 300m 나들이 공원 약수터



대한불교 조계종 극 락 사

[종무소문의: 02)434-1717]

기문둔갑 실전 특강

개업, 영업반, 20년 경력 교수 직강

2010년 2학기 (스님 특별우대)

동방대학원대학교

문의처 02)3668-9890 / 010-7178-8709

미국에서 부전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공양주보살, 사무장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전망 좋은 신도시와 근접하여 지내기 좋은 곳.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살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경남 김해

055)323-4136

010-3499-3721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찰 건 축 전 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불 사 안 내

산승은 아미타불 대불 조성을 발원하고 천일기도 중입니다.
불사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께 월하 큰스님 친필글씨 전지 2점과 청남 오재봉 선생 친필글씨 2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인연을 지으셔서 세세생생 성불하십시오.

054)853-3855 / 010-9890-1237 만성 합장

이 전화로 연락 주실분은 오전 7시~8시, 12~14시, 17~19시 사이에 연락 주십시오.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회 원 모 집

世界佛教 宇州 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원종단 : 韓國佛教 一大圓 曹溪宗
大韓佛教 宇州 大 法王宗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 입회 (종)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 (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世界佛教宇州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11-286-2439 / 031)953-7045, 952-4077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3-01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사주 명리학 공개강의

사주 명리학에 처음 접하거나, 입문 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 13시

■ 과목 :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 타롯카드반은 수강신청에 따라 별도운영

■ 강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장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 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화 : 010-7154-8835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 위치 : 충북 충주
- 법당 : 50외 15평
- 요사 : 8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3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지리산 무릉도원

-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주차장: 300평(버스 진입 가능)
- 사계절 첩첩, 계곡물 철철
- 야생화 만발,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3천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텃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능)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50평
- 기타 : 나한전, 석등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기도 포교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90평 ●산신각 : 10평(목조,닷집)
- 기타 : 석불(12자)연못 등
- 가액 : 5억 3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 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대출 가능

011-869-8608 큰스님 직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2층 건물 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2천만원 월 35만원 전세, 월세 조정가능
- 시설비 7백만원(조절가능)

010-4870-8359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011-329-66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주택토굴안내

- 위치 : 밀양시 부북면 운전학원에서 북쪽으로 500M지점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17-390-335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 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대지 600평
- 건물: 법당 50평, 요사 30평
- 다용도실 10평, 방사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30평 ● 요사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643-66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 임대

02)2618-09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정골목 38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 3, 식당거실
- 인테리어 – 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연신내역, 구산역 5분거리)
- 총 100평,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 72평, 시설은 A급 주차장 있음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10억(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4725-921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법당 15평, 요사37평,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 납골 2,000기 봉안 가능
- 전세 2천만원(양도도 가능)

063)543-5551
010-4427-225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당감동
- 큰도로 시장부근, 위치 좋음
- 대지 62평
- 3층 건물 3층, 법당 32평
- 2층 요사채 32평
- 1억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월 45만원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877-5488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평수 : 약 35평
- 5층건물 중 4층
- 청동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지장, 산신 탱화
- 법당, 방1, 주방1
- 모든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17-0582

사찰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고양시 삼송신도시 산아래(계곡)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2층 신축건물
- 남향, 주차장완비(연못, 산신각가능)
- 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거리
- 가액 : 12억(문의시 안내해드림)

011-347-5020

대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시 내 포 교 원

- 위치 : 청주시 단독주택
- 1층 : 방4, 주방, 거실, 욕실
- 2층 방3, 주방, 욕실, 옥상
- 3층 법당 삼존불 모셔서 있음
- 대지 50평, 지하실, 창고 있음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절충가능

011-753-07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 모든 시설 완벽
- 보증금 3,500 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34-5520

포교원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대지 66평, 사용평수 120평
- 1층 37평, 2층법당 20평
- 법당뒤 밭, 대나무밭 바다가 보임
- 교통편리, 주차가능,
- 도시가스, 화장실 4개
- 가액 : 2억 7천만원
- 주인직

010-3133-00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3층건물중 2층 60평
- 법당: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 신중, 지장탱화, 인등400, 소불 108
- 시설: 방 3, 종무소, 산신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소임관계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50-771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완주군 구이면
- 법당, 삼존불, 주방 임야 4만평, 요사채 2
- 가액 : 7억

010-8000-813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 평수 93평
- 건평 20평, 창고 7평
- 마을 끝집
- 가액: 5천 4백만원

055)944-4256
011-583-42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 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315-2100

도 심 포 교 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 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011-425-6054
041)333-60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남 목포 산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봉천동 3층에 3층
- 55평(주차1대)
- 법당,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용왕탱,
- 영가단, 종무소, 스님방, 주방, 화장실2, 창고2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보증금 시설비 절충가능
- 꼭 하실 스님만 오후 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10-4768-0108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1017평

055)632-3840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역전 근처
- 건물 특 A급, 법당, 부처님관세음, 약사 지장 칠성, 동자 분수대 종합탱화
- 평수 3층, 주택 중 1층 25평
- 주차장용도 창고 있음
- 1층 단독 사용,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법당 확장 관계로 이전했으니 소원성취 이루실 분 환영, 스님, 보살님, 철학인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5-316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보성 대원사 벚꽃길 중간에서 산속 200m 전용도로 끝 지점
- 백련암 옛 절터, 홍송, 편백나무 숲
- 주위 산은 국유지, 부지 1000여평
- 법당 10평, 요사채 3, 누각 1, 연못
- 가액: 4억 5천만원, 전세 1억 가능

061)322-3269
010-6512-536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이 인간의 모습 벗기 전에 이 마음도리 알아야

삶의 고비를 거치게 되는데…

문) 세상을 살다 보니 삶의 고비를 여러 차례 거치게 되는데 그 때마다 저의 형님이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형님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제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답)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고비를 넘기려면 이 세상 끝간 데 없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제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모든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사량으로 '이건 절대로 못한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결정 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든지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그랬죠.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사람이 한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야,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거,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멋지다는 건 묘법이라는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한참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뭐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문 하는 거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지 않아요

문) 저의 가족과 시동생 가족이 함께 사는데 동서가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지질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이 마음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지, 그렇잖으면 무엇 때문에 수도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분해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악업 선업을 받은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알았어." 하게 되는데 '저 조그만 스님이 뭘 알아, 알기는?' 이렇게 업신여기고 의심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겁니다.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사실이죠. 마음을 여러분이 쓰는 대로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명이 오시든지 두 명이 오시든지, 열 명이 오시든지 백 명이 오시든지 그런 건 상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 몸 속에 수십억 개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렇게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데, 그 들어 있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주어져 있는 것을 그냥 내놓을 뿐이지 이거를 잘 돌리거나 못 돌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 팔자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법하는 거를 듣고 '아, 이거는 모두가 내 몸속에 있는 거니까 나 아님이 없구나. 모두가 한마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음파가 속으로 모든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다 듣고 한마음이 돼 줘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러 가자 이런다면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강도짓을 하게 가자 하면 강도질을 하게 해 주고,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게 해 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설법을 듣고 하나하나 그 내 마음을, 내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서 생각을 해서 거기 놓는다면 모든 중생이 한마음으로 되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한마음이지만 이 속에 들

☞14면으로 계속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재) 해동불교 연합회

봉 **종도입종 안내** 축

본 종단에서는 창종 15주년을 맞아
무료입종 안내를 드립니다.

불국정토를 위해 정진하시는 전국의 스님들과 재가불자님 또한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행중인 모든 불보살님 및 법사님은
본 종단에 입종하시길 기다리며 환영합니다.

입 종 안 내

ㅡ .구비서류 : 1. 사진 3매(4x5) 2.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하시는 모든분은 사암등록증, 스님임명장 승려증을 발급하여드립니다.
(유발보살님, 법사님은 본 연합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며, 세무서에 등록하여 연말정산를 발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수행정진하실 예비스님 및 행자 모십니다.

(재) 대한불교 해동조계종 총본산 **종정 청암** 합장

불기 2554년 9월

입 종 경북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343번지 적산사
문 의 054) 931-0793 010-4809-2638

이 부처님 법 배우려면 모든 것을 한군데다 뭉쳐놔야

☞13면에서 계속

어 있는 의식들은 수십억의 의식들입니다, 제가끔. 어느 한 공장의 직원들처럼 말입니다. 간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신장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어디 뭐, 공장을 들이대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장 속에서 중생들이 작용을 해 줘야 이 사람이 움죽거리게 돼 있고, 사람이 살게 돼 있고,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이런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지, 독단적으로 내가 나라고만 한다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은 어떡하고요? 모습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들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다 커버해서 한마음으로 뭉쳐 놓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의심하지 말고 또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한 식구라도 미워하지 말고, 미우면 거기다가 맡겨 놓고, 내 깊은 내면 속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대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요. 전구는 다 달라도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불을 켜는데 어찌 그쪽 마음에서 불을 안 켜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불이 켜지면 다 같이 한방에서 살 수 있듯이 우린 밝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컴컴하면 그것이 암흑이고 지옥이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천당이니 지옥이니 승천이니 하는 것도 바로 이 자립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먹고 결정지어 놓고, 결정지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도 결정지을 게 없는 게, 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어느 거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니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했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법을 일러 주시고 길잡이 노릇을 하셨지, 그분도 고깃덩어릴 믿으라고는 안 그러셨습니다. "네 마음부터 깨쳐야 내 마음 알 수 있느니라. 내 육신을 보고자 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고 네 마음부터 바로 발견하라." 이러셨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우주 바깥에도 나갈 수 있거니와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 있고, 아무리 천리만리 멀다 하더라도 한 찰나에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면 진짜로 모든 걸 한군데다 뭉쳐 놓지 않는다면 아니 됩니다. 모두 놓지 않고는 모두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한번 이렇게 태어나면은 한 철 살다가 고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철 동안에 이 몸을 열반경지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해야 열반이지 큰스님네들이 죽어서 열반이 아닙니다. 죽는 게 열반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나온 새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다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열반이.

이런 거, 내 몸속에 하나하나의 세균 중생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한쪽만 기울어졌어도 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을 먹고도 그것이 오줌이 됩니다,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자꾸. 또 다른 게 먹고 또 일부분이 되고, 또 증발하고 또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얘깁니다.

>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도 나 아님이 없다는 걸 안다면**
> **어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다복하고 또는 화목하고 모두가 슬기롭게 넘어가려면, 그리고 이 도리를 배우려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지.' 하고 싱긋이 한번 웃고 거기다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니 아이, 인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한마음 속에 모든 걸 집어넣는 이 마음공부로써 그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한마음을 구하고…

문) 위로는 한마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생중생들을 제도하도록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이 좀 막연해서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답) 한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과도 같은 한마음입니다. 위로는 한마음을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분 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 속에, 세포 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을, 그 모습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 모습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내 몸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이 움죽거려 줘야만이 움죽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시공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움죽거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이것은 잘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몸은 자기가 소임을 맡은 대로 움죽거리면서 이 한 몸을 앞장세웠습니다. 모든 모습들과 마음들이, 위로는 마음들이요 아래로는 그 모습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움죽거려 주는 그 역할을 그대로 우리는 한데 합쳐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마음 중심(中心), 중용(中庸), 중도(中道)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 '깊은 정(定)에 들어 죽은 내 몸이여! 그대로 나투며 시공이 없이 도는 몸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는 일체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공식(共食)하고 있고, 공생(共生)하고 있죠. 공용(共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심, 중용, 중도의 정(定)에 든다면, 정에서 나오는 거 정에다 도로 놓는다면 그 씀씀이가 바로 유유하고 여여하고, 천 가지 만 가지에 부딪치지 않고, 시공이 없고, 윤회에 걸림이 없고 생사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빙그레 웃고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다 함은, 하늘을 받칠 불기둥이 있고 한 발로 디뎠다면 그것은 그대로 밝기 때문에, 그대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삶과 죽음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한 별성이기 이전에 혹성이기도 합니다. 그 혹성 안에, 오대양 육대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오장 육부가 그러하니깐요. 이것을 가까운 데 두고 모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전체, 무(無)와 유(有)의 세계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남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고 상대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천태만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위로는 한마음이요, 아래로는 모습이 한몸이니 아픔도 한몸입니다. 그래서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들이 나아야 내가 낫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 육부의 세포의 생명들이 나아야, 그 모습들이 건강해야 나의 모습도 건강하겠죠.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남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 남의 몸도 건강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름이나 찾고 허공이나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는 사실, 그리고 맛을 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쫓기며 쫓으면서, 밟히며 밟으면서 인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죠. 우리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까르마 즉, 업이 되어 쌓인다고 들었는데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산 부처님이 계셨는데 어느 신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가난하고 애고가 많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든 게 닥치느니라. 또한 지금 어떻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올 것이니라." 그랬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마음이 짓는 것은 모든 게 마음 놀음이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나쁘게도 하고 사람을 좋게도 하는데 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건 줄 알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속의 그 여러 의식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반면에 모든 우주의 법계에 전부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고 인과응보가 생기고, 또는 영계성이 생기고,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그 물질, 마음, 의식 이런 거하고 첨보가 되면 영계성이 되지요, 인연의 영계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이 된다.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자기 근본 자리에다가 놔야 그것이 바로 자가발전소에 놔서 모든 게 타 버리는 거와 같아서 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나오는 대로 공부 재료로 삼아 근본 자리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체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병의 원인을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병증이 있으면 체질에 맞게 체질한 약차를 드시면
5일안에 본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은 무얼까?
나에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전화주세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요절복통 여래네 집

#28. 여래와 외삼촌



여래에게는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외삼촌이 있습니다.







여래 외삼촌은 성격도 좋지만 또한 굉장한 노력형이기도 하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굴하지 않고 꿈임없이 도전한 결과 우체국에서 취직이 되었다는 취업통보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여래네 식구는 외삼촌 덕분에 오랫만에 고깃집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동안 여래네 집에 묵으면서 누나인 여래엄마와 회포를 풀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여래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 발을 다쳤지 뭐예요.



다친 곳은 엄지발가락 조금이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른쪽다리뿐만이 아니라 사타구니를 비롯해 전신이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여래는 문득 외삼촌이 안쓰러워졌습니다.



다음날부터 여래는 틈만 나면 외삼촌 주위를 맴돌며 뭐 도와줄 일이 없나 살폈어요.



여래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자 외삼촌이 웃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색해보여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서 큰 불편없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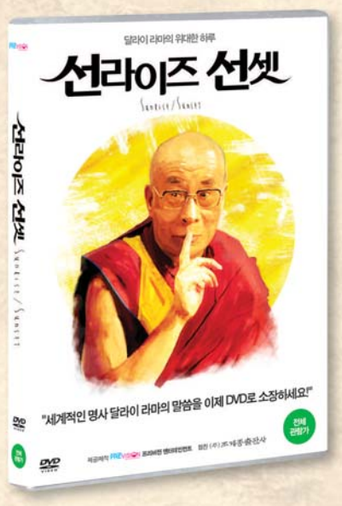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오로지 조심하라.
말을 악한 말은 자기도 남에게도 해롭고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세계적인 명사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이제 DVD로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선라이즈 선셋 DVD
Sunrise / Sunset
25,000원 (택배비 별도)

달라이 라마가 일상의 대화에서 직접 전하는
따뜻한 삶의 교훈과 위대한 메시지가 담긴 유일한 영상!!
〈선라이즈 선셋〉 DVD는 뜻깊은 선물과 가치있는 소장품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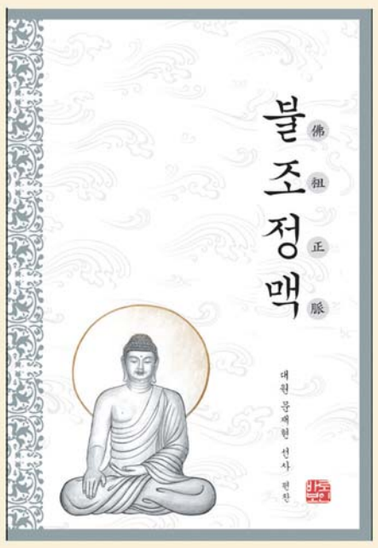
제공|제작 PREVISION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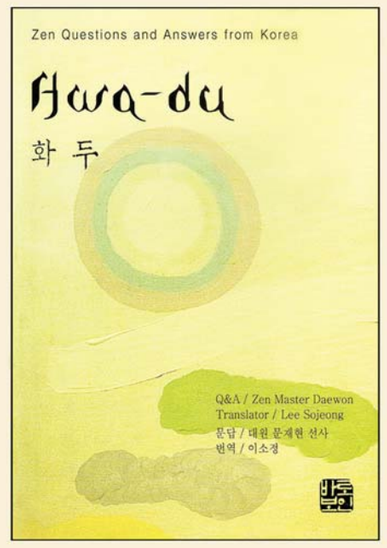
구입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정맥진영과 전법게를 다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불조정맥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드날리는 화 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신간! 화두/Hwa-du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하여 우리말과 함께 실어서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세계평화 인류화합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기원"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식 및 세계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 행사명 :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
- 주 최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담화문화재단
- 주 관 : 법왕청 승가단, 일붕법왕종, 불교통합종단협의회
- 장 소 : 청원 법왕청 제2청사
- 후 원 : 법왕청신문, 불교TV, 현대불교신문, 경기매일, 월간 노인건강복지, 불교일보, 영문 외교저널, 연합불교방송, 교계신문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담화 이존영 이사장은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붕법왕문도의 날을 세계불교법왕의날로 재정 선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9일~10일까지 2일간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고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 정진 및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를 봉행 한다고 밝혔다.

1.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계불교법왕의날 행사가 오는 2010년 10월 9~10일까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7-1번지 법왕청 제2청사에서"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정진 및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2. 이번 9일에 열리는 철야 3000배 기도정진을 통하여 의장국으로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최한 역대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가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10일 당일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님의 동상제막식을 봉행하고 2부 법회에서는 고승대덕큰스님 문도 및 신도, 내외귀빈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인류 평화와 인류 화합을 기원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세계불교 법왕의 날 선포식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4. 당일 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무료로 중식제공 및 T셔츠를 지급 하고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기타 전자제품 및 생활필수품 제공은 물론 가수초청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5. 9일 전야제에 참석하여 3000배 철야 정진기도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장 및 3000배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6. 본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찰 및 문.형제들은 02)3216-3216(법왕청) 또는 02)3417-1010(일붕법왕문도회), 국번없이 1644-3668(일붕법왕종 총무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일붕법왕 동상 제작에 있어 동상에 이름을 새길 경우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찰에서 명단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비는 1인당 1구좌 5만원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9일**
- 전 시 : **오전 9시**
  6.25전쟁 60주년기념 UN에 보관중인 6,25 사진전 및 일붕법왕의 발길따라 사진전 및 백두산 풍경 사진 전시회(1개월간)
- 기 도 : **오후 3시 부터**
  (G20 세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정진기도 봉행)

둘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붕법왕문도회)
  - 1부 행사 : **오전 10시 30분** 초대법왕 일붕 큰스님 동상 제막식
  - 2부 법회 : **오전 11시 부터**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G20 정상회의 개최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세계불교 법 왕의날 기념 대법회 봉행
  - 3부 행사 : 시상식 및 어르신 초청 가수공연 및 경연대회
  - 4부 행사 :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초상화 전달식은 담화이사장에 의해 현재 옻칠 문화재 청목 선생님이 천연 옻칠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음 판화를 제작하여 필요한 사찰에 무료로 보급하는 시간입니다.

■ 봉행위원

혜륭, 정각, 혜운, 원각, 지공, 공심, 법광, 운송, 법상, 보문, 동봉, 범홍, 청암, 법장, 법열, 공심, 원산, 법선, 법성, 아산, 혜광, 법공, 지허, 보리, 유심, 혜도, 해월, 해문, 도현, 효천, 혜선, 수원, 법성, 혜도, 무심, 혜성, 혜광, 혜원, 도현, 진산, 혜경, 지승, 보광, 혜정, 도성, 도일, 보리, 도우, 혜인, 법진, 일월, 무무 덕산, 청타, 지원, 법천, 법성화, 운각, 법광, 법선, 보문, 해명, 성경, 성수, 성범, 대덕화 법은, 도해, 자광, 혜등, 고담, 법상, 보현, 성각, 현인, 지흘, 지은, 지현, 정률, 정수, 경란 령산, 법우, 혜공, 문학, 지성, 일현, 일선, 보향, 보명, 보련화, 도휘, 보명, 법수, 원명, 현우, 영인, 보명, 원경, 일현, 정암, 무공, 보경, 지연, 묘정, 혜지, 소보, 법연심, 도진 보면, 혜인, 도선, 혜법, 법연, 봉선, 도철, 도심, 도안, 법성화, 천자, 도법, 혜화, 영은 법정, 홍련, 청산, 청암, 은곡, 혜천, 마정, 법안, 성허, 관행, 지광

■ 참가종단

대승불교여래종 세계승왕 인왕,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각, 세계불교 세심종 총무원장 범홍, 세계불교 법사종 종정 청하, 국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세계불교 일화종 종정 황정,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신풍, 호국불교 효예종 종정 법진,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해광, 총남불교 조계종 종정 청암, 대한불교 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월호, 대한불교 자비종 총무원장 도경, 대한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 지장선종 종정 혜봉, 대한불교 대원종 비구니회장 대광, 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 조계종성불회 회장 만공,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사)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정철,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회 법왕자,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해광, 대한불교여래조계종 총무원장 해덕 월명,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청산,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종정 청오 사불,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무원장 대천,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대한불교 활법종 총사 활인, 대한불교 용화조계종 총무원장 해운,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회장 정치호, (사)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이사장 구미숙, (사)한국옻나무협회 회장 청목, (사)한국옻칠공예협회 회장 김인섭, (사)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단장 김주동, (사)나라사랑 이사장 민기붕,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이칠용, (사)한국자애인유권자연맹 이사장 최봉실,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통합불교아미타종 이기욱,(사)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규호, 한국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혜수,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불, 한국자유총연맹 종교특별분과위원장 이춘섭, 대한불교대성종 종정 대성,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청산,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대한불교약불종 총무원장 보각, 해동불교무량종 총무원장 학성,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자오,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대한불교도천종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대은,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장 법륜,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혜성, 호국불교선미륵종 총무원장 효진, 한국불교석가종 총무원장 원통, 정법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석지, 대한불교위앙종 총무원장 위산, (사)민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당,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성인.

- 무순 - 추후 참가종단 및 봉행위원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접수처 : 02)3216-3216 / 011-399-3113에서 접수함.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장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청 제2청사 043)296-1081**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총재 김정각 대종사, 총장 송법장, 종정 해운, 총무원장 원각, 이사장 담화, 법왕청 승가단 회장 운송 대종사, 단장 법상, 유심

■ 가입문의 - 통합불교종단협의회 011-829-9120 / 법왕청 승가단 010-5057-8833 합니다.